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8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91 1982년4월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April 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경찰, 미문화원방화수사에 갈팡질팡

대대적 검거선풍

원주·삼천포교구 신부들도 연행

(서울6일=연합)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2명의 가톨릭신부를 포함, 대대적 검거선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경찰은 지난주 사건의 주범으로 문부식과 김은숙을 체포한데 이어 가톨릭교구 원주지구 최기식신부(42)등 4명의 가톨릭 관계자를 서울로 연행, 사건의 배후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최신부가 방화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를캐고있다.

3일 경찰은 문화원 방화사건의 또다른 주범 으로 김현장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80년 광주사태이후 경찰이 수배중이던 인물이다.

경찰기동대는 김씨가 숨어있더 원주 가톨릭교육청을 포위, 체포한후 서울로 압송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직후주모자로 체포된 정순철씨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는 관련없으나 대신 지난 80년 광주사태 관계혐의로 박계동(30), 박관현와 함께 체포됐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은 박계동씨가 80년의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이고 공범 정순철씨와같이 지난1월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가톨릭 삼천포지구 김용식신부가 밀항기도 알선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박계동씨는 5일 체포될 때까지 수원에 숨어있었고 박관현씨는 서울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3월18일 미문화원 방화사건직후 전국적으로 혐의자를 검색, 서울에서 만5천명을 연행조사했었다.

◆서울대교구장김수환추기경

김수환추기경 4월말 토론토에

한인천주교문화관 낙성식위해

천주교서울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4월말 토론토를 공식 방문한다.

토론토 한인천주교회(신부 고종옥)가 개축중인 한인가톨릭 문화관(던다스×팔리먼트)의 준공에 따라 오는 5월1일(토) 낙성, 축성식을 집전하는 김추기경은 이어 100명에 가까운 신자들의 견진성사도 주례한다.

견진성사는 가톨릭에서 세례받아 영혼이 그리스도의 어린이로 태어난 신자를 영적 어른으로 굳히는 「영혼의 성년식 이다.」

한편 5월2일(일) 하오6시 김추기경 환영 디너 파티가 대대적으로 열린다.(장소는 아직 미정)

이번 준공된 한인가톨릭 문화관은 우선 토론토 대교구가 건축비를 입체, 작년 여름 착공했으며, 한인신자들 사이에 목표액 $60만의 건립기금 보금운동을 전개, 3월말 현재 40만5천307달러18센트(현금 $328,790.96, 약정액 $76,516,22)가 걷혔다.

이 금액은 80년 12월초에 착수, 1년반 동안에 걷힌 것 이다.

새로 마련된 문화관은 사제관(신부숙소), 사무실, 대강당,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리교실, 학생회, 청년회, 노인회, 마리아회(부인회), 대건회실(젊은 부부회), 성가대 연습실, 도서실, 친교실등으로 쓰여질것이다.

— 알 림 —

오는 9일은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굿·프라이데이)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본사는 휴무 합니다.

따라서 12일자(월) 토론토판은 쉬고 한국일보는 13일자(화)와 합본 발행합니다.

광고는 10일(토)에도 계속 접수 합니다.

전화 533 2361

政局 화제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토론토시의원 토니·오도노휴가 시장을 배반자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찍음으로써 토론토 정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세번씩이나 등뒤에서 칼로 찌른 내 친한 친구 시장님"이란 책을 써야겠다

"이글튼시장은 배반자"

집행위 낙선된 오도노휴의원 주장

는 시의원 오도노휴는 5일 시정집행위(City Council's Executive Committee)선거 에서 이글톤시장이 약속과 달리 자기 대신 고든·청시의원을 지지한 데 대해 분노를 참지못했다.

집행위는 시장의 직속 행정기관으로, 말하자면 토론토 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오도노휴와 이글튼시장은 20년간 사귀어온 친한 친구로 정계경력도 비슷하다.

오도노휴에 의하면 지난 1월 고든·크리씨의원이 유나이트·웨이 회장 취임관계로 집행위사임의 사유를 밝힌직후 이글턴시장은 자기를 지지해주겠다고 언명했었다고 한다. 이글톤시장은 지난 2일까지도 자기를 밀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집행위 선출이 있던 5일 아침 시장이 불쑥 오도노휴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지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오도노휴는 그것이 이글톤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노여움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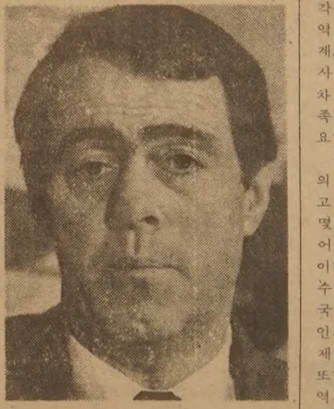
연봉 $49,000의 시집행위원은, 23명의 시의원들이 모여 공개 투표로 위원을 뽑는데 이날 최후까지 고든·청, 패·쉐퍼드와 겨루던 오도노휴는 마지막 투표에서 고든·청에 패했다.

이글톤시장은 지역안배를 위해 고든·청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도노휴는 80년도에 이글톤이 시장에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도 자기가 멕시코로 외유한 틈을 타 사전협의도 없 었고,(오도노휴는 78년도에 시장에 출마했었다.) 시장에 선출된 직후에도 집행위원에 친구인 자기를 앉히기보다 조·피시니니의원을 더 밀었다고 말했다.

오도노휴의 주장에 대해 이글톤시장은 "그가 기분 언짢아하는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이것으로 우정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트·이글톤시장



◆토니·오도노휴

토론토한국일보사 병설

한인이민사연구실 설치

이민사 정립위한 자료수집 착수

본사는 온타리오이민사연구소의 기술 후원을받아 캐나다 전국에 걸친 한인이민사 자료를 수집, 정리, 비치함으로써 이민사 정립편찬에 도움되고자 4월5일자로 한국일보사 병설「한인 이민연구실(Korean Immgration Resource Centre)」를 설치, 초대실장에이석현 본보 편집장이 선정됐다.

본 연구실의 업무는 전국각지의 이민초기및 현재에 이르는 사이의 자료들, 각종단체의 행사·업적·지역별 교포분포·직종별 통계, 교회연혁 현황등 이민사 자료를 수집보관하는장차 이민현지에 있어서의민족100년 대계를 터잡는 중요한 기초작업이다.

지역별 이민연혁, 각단체의 발자취, 교회행사등 크고작은 사료(史料)들은 몇몇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민사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의 의의에 찬동하는전국 교포들의 단체또는 개인의 많은 협조, 특히 자료제공을 기대한다. 이것은 또한 교민들이 살고있는지역의 알찬 자취를 문헌을 담아 길이 남기는 자랑다운 일도 될 것이다.

본사는 그간 많은 교민들로부터"한인이민역사 20년이 되도록 이민사 정립을 위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함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민사연구실 설치를 제의받았다.

본사 사옥2층 듀폰·스트릿쪽 사무실에 설치된 한인이민사 연구실은 사료를 필요로하는 모든 한인에게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이용 할 수 있다.

자료정리등의 기술 후원을 해줄 온타리오 이민사연구소는 주로 온타리오내 이민족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주정부 보조기관이다.

이민사자료란?

(1)개인에 관계된 자료—스크랩 북, 일기장, 회고록, 가족사진, 본국과 이민자 사이의 편지.

(2)사회단체에 관계된 기록—회의록, 선전문, 재정보고서, 단체약사, 단체헌법, 회원명부, 보도자료.

(3)이민안내관계 책자.

(4)교회관계 기록—세례, 혼인, 장례식, 회보, 기념 간행물, 빌딩기록, 사진, 주일학교 관계기록, 연차보고서, 재정보고서, 교인명부, 교회야사, 교회각소회의기록, 선교집등.

(5)신문들(캐나다엔 지금까지 11개 한글신문이 있었다.)

(6)구술인터뷰—녹음 테이프등.

자료접수처 :
한인이민사 연구실
The Korean Immgration Resource Centre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Tel : 1-(416) 533-2361

CBC 음악경연대회

6월15일 신청마감

제22차 CBC래디오 방송 청소년 음악경연대회 출전 응모마감이 6월15일로 박두했다.

상금 총$28,500가 걸려있는 이 대회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최소 2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성악부문은 1948년6월1일 이후 1967년12월31일이전, 기악부문은 1953년1월1일 이후 196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출전할 수 있다.

피아노, 성악부문은 1등$2,500, 2등$1,500, 3등$1,000, 피아노3중주(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부문에는 1등$6,000, 2등$4,500, 3등$3,000의 상금이 각각 수여되며, 전체수석 입상자에는 $5,000이 수여된다.

경연대회는 83년4월7일부터 15일까지 몬트리얼에서 개최되며, 각 지역별로 예선을 겸한 오디션이 실시된다.

출전신청서는 각급 음악학교나 전국 각 CBC방송국, 혹은 CBC래디오 탤런트 경연대회 Box 500, Station A, Toronto, Ont. M5W 1E6 에서 구할 수 있다.

CBC방송의 문의전화는 925-3311, Ext.3486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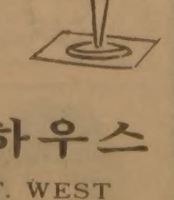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외국면허소지 의사 및 치과의사를 위한

제6회 국가시험 시행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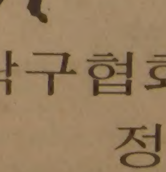
1. 시험종별 : 가. 외국면허 소지 의사 국가시험
   나. 외국면허 소지 치과의사 국가시험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외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가. 접수마감 : 82.6.5까지 해당공관 또는 6.23까지 국립 보건원에 접수
   나. 시험일시 : 82.6.24 10:00시
4. 시험과목 : 가. 의 사 : 국사, 보건의약관계법규, 예방의학
   나. 치과의사 : 국가, 보건의약관계법규, 실기시험
5. 시험방법 : 주, 객관식 병행하며 외국면허소지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종료 직후 시행
6. 시험장소 : 국립보건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7. 구비서류 : 가. 응시원서1부(당관 또는 국립보건원 교부)
   나. 외국 면허증 사본1부
   다. 건강진단서1부
   라. 신원증명서1부
   마. 당해국 영주권 취득 증명서사본1부 (공관장 확인)
   바. 사진6매(응시원서와의 날로 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 수수료 : 2,000원에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3.50)
8. 기타 상세한내용은 총영사관이나 국립보건원 보건고시과 (서울 전화 388-0091/8)에 문의 하시기 바람.

주 토론토총영사관

탁구협회공고

82년도 탁구협회 임시총회가 다음과 같이 있겠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 일 : 4 월24일 (토)오후7시
○장 소 : 크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탁구협회 회장
정 영 모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스키협회 창설

가족대표 25명 참석, 박경택씨 회장에

교민사회 또하나의 단체가 탄생했다.

스키시즌은 끝났으나 돌아오는 겨울에 대비, 교민들의 체력향상과 스키인구저변확대에 목적을 둔 스키협회가 발족됐다.

지난2일 콜링톤하우스에 모인 250명의 스키가족 대표들은 창립총회를 열고, 그동안 스키협회 창립에수고했던 박경택(사업)씨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했다.

장기원(사업)씨를 부회장으로 지명한 박회장은 "스키협회는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실질적 회원수는 70~80명에달한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5일 곧 체육회 산하단체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키협회의 회비는 연20 달러이며 이 회비로 온가족이 협회주관 행사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교민들은 491—1931(박경택), 또는 773—5531(장기원)로 연락하도록.

AMC, 집차가격 인하
리베이트 기간도

(디트로이트)아메리칸·모터스(AMC)는 1일 82년도형 CJ-5, CJ-7및 스크램블러·집차의 기본 가격을 오는 6월30일까지 캐나다에서 $799~$1,106을 낮춰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가격이 인하됐다.

AMC는 북미 자동차생산업체중 처음으로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썼다. 「크라이슬러」나 「GM」등은 환불제도(rebate) 또는 이자율인하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의 GM은 지난 3월30일 자동차 월부이자율을 12.8%까지 내렸다. 특혜기간은 5월31일까지이다.

한편 캐나다의 크라이슬러와 GM은 소비자 환불정책 기간을 3월말에서 각각 4월10일과 30일로 연장했다.

〈멧돌〉·〈구름다리〉 대학생동인지 나와

토론토의 2개 대학생 단체가 동인지를 냈다.

토론토한인대학생회(KUSA)는 월간〈멧돌〉 3월호(제6권4호)를 펴냈다.

백응진 교수(UT 동양학과)의 기고「한국어와 Korean—Canada Identity」, 작고시인 김동명의 시「파초」를 곁들여 학생작품 시, 수상·꽁트·소식란등 국배판(11×8.5인치)16면, 비매품으로 나왔다.(편집 : 박성민)

한편 대학생 문학서클 「구름다리」는 동인지〈구름다리〉제6집을 내놓았다.

역시 국배판 75면·비매품인 이번 6집에는 마가렛·앳웃과 서정대씨의 기고시를 비롯, 15명 동인의 시, 수필, 소론, 꽁트등 32편을 실었다.(편집 : 엄혁)

승공문화협회 창립
반공정신으로 결속

승공문화협회 창립총회가 7일(수) 하오7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린다. 전 동우회이사장 박광철씨및 과정렬씨, 킴스카메라 대표 김춘탁씨등이 주동이 된 이 모임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섬가는 캐나다의 자유민주시민으로서 북한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불순분자들이 교포사회에 파고드는등에 대처, 대동단결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교포사회 발전을 위해 발족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발족준비자들은 이 모임에 교포들의 참여와 적극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정기세미나 개최
한인컴퓨터협회

캐나다 한인 컴퓨터협회(COSKA, 회장 이태영)는 지난 2일 저녁 빅포드·파고교에서 제19회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초대강사 이창희박사는「철강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연제로 강연했으며 박충웅, 정해춘, 노기수, 오덕근, 정재열, 정인, 박충길 제씨의 발표도 있었다.

현재 166명의 회원을(일반인 117명, 학생49명) 갖고 있는 컴퓨터협회는 지난 2월4일 아래와 같이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이태영
◆부회장:한석주
◆총무:김규식
◆서기:홍승표
◆회계:이대용
◆봉사:김명수
◆편집: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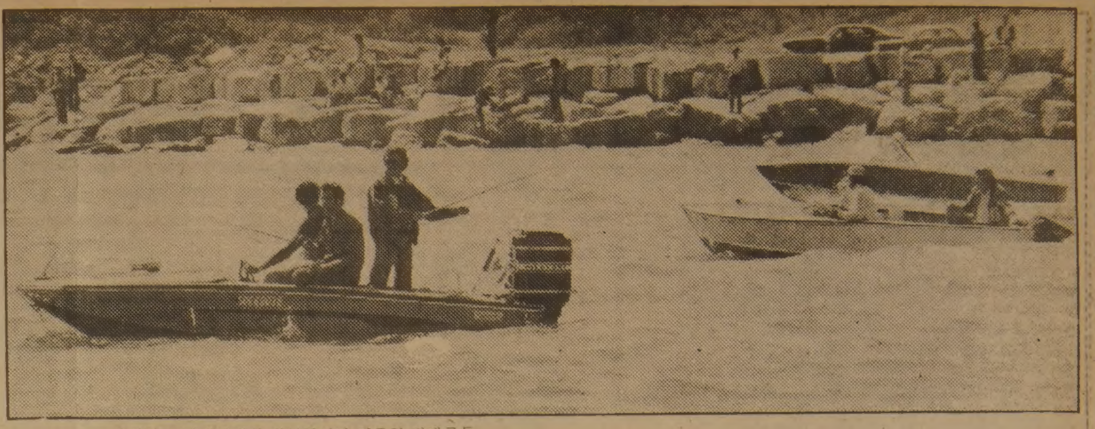
한편 동협회는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분야에 대한 이해,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 위원회(Project Committee)를 구성,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두어, 회원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회원은 적어도 한 프로젝트에 꼭 참여토록 했다.

1. DATA COMMUNICATIONS PROJECT
2. COMPUTER FUTURE TECHNOLOGIES PROJECT
3. HOST SYSTEM SOFTWARE PROJECT
4. APPLICATION SYSTEMS PROJECT
5. DATA BASE MANAGEMENT SYSTEMS PROJECT
6. DISTRIBUTED DATA PROCESSING PROJECT
7. MICO/MINI COMPUTER PROJECT
8. EDP PROFESSIONALS & BUSINESS OPORTUNITIES PROJECT

◇젊은이들의 꿈 : 전통적인 결혼관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요즈음 사회에서〈백년해로〉는 어쩌면 젊은이들에는 꿈만같은 소리가 돼가는 지도 모른다. 결혼 70주년을 맞는 프랭크·라잇 할아버지와 에드나 할머니는 동갑인 89살, 슬하에 증손자까지 둔 부부의 사랑은 변함없이 젊다. 장미송이를 살짝 감춘채 거리에서 정다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

—정　정—

지난5일자 1면 「금주의 행사」기사중 "한인 신용조합 정기총회" 개최일은 9일이 아니라, 8일(목) 하오 6시30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세인트·캐서린에서 연어잡이에 열중한 강태공들

양어장 물고기 방출
강태공들은 꿈 부풀고

4월은「잔인한 달」?초봄 들어 시샘 추위가 다시 코트깃을 여미게 하지만이미 강태공들은 설레이는마음으로 낚시도구들을 손질하며 대어의 꿈을편다.

올해 온타리오호수 서부지역에 인공으로 부화된물고기 상태를 살펴보면.

◇포트·홉(Port Hope)—숭어(Lake trout)10만마리
◇크레딧·리버(The Credit River)—38만4천마리 〈Rainbow trout—98,000, Yearling coho Salmon—89,000, Chinook salmon—62,000 재작년 가을 저장된작은 연어—29,500〉
◇그림스비(Grimsby)—Lake trout—92,400
◇나이아가라·리버(The Niagara River)—Chinook salmon—5만마리

그러나 나이아가라·리버끝 골든·호스슈(Golden Horseshoe)를 찾는 낚시꾼들은 불평이 대단하다. 그들은 인공부화된 5만 마리의 새끼 치눅(Chinook) 이 완전히 자라기 까지는 3~4년이 걸리고 또한 부화된 물고기의 생존율이 10%이므로 장차 5천마리밖에 기대할수 없다고 말한다. 나이아가라와 부근의 웰랜드운하(Welland Canal)은 온타리오호수 서부유역에 서 물고기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수의 흐름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행히 이웃 미국의 1천1백만달러 시설의 새몬·리버(Samon River)양어장이 수십만마리의 물고기들을 방출하여 낚시명소로써의 위치가 아직은 흔들리지않고있다.

나이아가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부유역의 봄철낚시명소는 세인트·캐서린(St. Catharines)과 포트·댈하우지(Port Dalhousie)가 있다.

연어(Salmon)는 늦여름과 강에다 산란하기전인 가을철에 보통 그레딧·리버 근교의 클락슨(Clarkson) 과 토론토 서쪽의 호수에 몰려든다.

캐나다, 미국등 선진부유국은 국민의 정신건강을위해 양어장에서 기른 고기를 호수등에 방출, 낚시꾼들을 즐겁게 해준다.

취임사 발표
함병섭이사장

지난26일 토론토 한인회 이사장에 재선된 함병섭씨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재임인사말을 발표했다.

"교민사회의 굳건한 단결이 요망되는 중요시기에 중임을 맡아 책임감이 앞선다. 이사회는 집행부의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그 건실한 정책을 돕고, 뒷받침하는 중요임무를 맡고있다.

카라반 한인의날등 행사와 한인회관 화장모금등사업에 교민전체의 참여를바란다.

이를위해 한인회및 이사회의 문을 활짝 열고, 젊고 참신한 세대를 대거참여시켜「일하는 한인회」, 「움직이는 한인회」가 되도록 총력 다할것을 약속드린다.

수난예배
9일 한인연합교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 이상철 300 Bloor St. W.)는 9일(금) 저녁 7시반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수난예배를 갖는다.

1부 이상철목사의 설교에 이어 2부 음악예배에서 동교회 성가대는 고 김정준(전 한국신학대학학장) 작사, 박재훈 작곡, 칸타타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을"을 부른다. 올갠은 유희자, 피아노 서혜경, 뉴욕 에밀레오페라단 단장 테너 박인수씨가 특별 초청되었다.

이날 한국에서 여러 형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난자들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으며 어린이들의 입장은 금지된다.

軍用機납치해 亡命
폴랜드武裝軍人 2명, 가족들 태우고 레이다網피해 低空비행끝에 빈着陸

〈빈, 오스트리아— 〉 2명의 무장한 폴랜드군인들이 1일 한 폴랜드군용기를 납치한 다음 그들의 가족들을 태우고 빈으로 탈출했다.

피납군용기에 탄 10명의 폴랜드인들은 모두 오스트리아당국에 정치적망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용기조종사는 폴랜드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개의 엔진을 단 소련제 복엽비행기 안토노프—2는 레이다망을 피해 체코슬로바키아상공을 저공비행하여 빈의 쉬베차트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피납군용기는 이날 3명의 군인을 싣고 정상비행훈련중이었는데 이중 2명의 군인들이 군용기를 납치했다.

◆망명군용기—폴랜드에서 오스트리아로 망명한 9명이 타고온 구식 쌍엽기.

텍사스巨富 앨브리튼 뉴욕데일리 引受발표

〈뉴욕— 〉 이미 6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텍사스 백만장자 조·앨브리튼이 뉴욕데일리 뉴스 신문을 사기로했다고 1일 이 신문사가 발표했다.

전국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뉴욕데일리뉴스는 그동안 적자운영에 허덕여오다가 최근에 구입희망자를 찾기시작했다.

앨브리튼(57세)는 워싱턴스타 신문을 1974년부터 1978년까지 경영하다가 「타임」회사에 팔았다.

제5계절

노래의 발산

안병원 (음악가)

◇안병원 씨

「노래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있다.

한국사람들은 다른나라 사람들보다 더 노래를 좋아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당신은 지난주에어디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읍니까? 지난달은 어디에서…?" 물어볼 정도로 사실은노래를 부르지않고 있다.

생각하면 노래는어떤"기회"가 있어야 불리어진다.

우리가 들수있는 기회라면 아무도 듣지않는 하이웨이를 달리는 찻속이나혼자서 집을지키고 있을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반강제로 돌림노래를 부를때…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줍어서, 또는 "나는 음치야!" 등등으로 사양한다. 친구들끼리모여서"우리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보자"하는 따위는 전연 찾아볼수 없다.

그리스도교가 옛부터 존재한 나라에서는 한주일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몇곡(성가)를 큰 소리로 부르며 주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이 습관이되어 수백년간 내려오는동안 국민적 성격에까지 영향을 준것이다.

백인들의 모임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면 누가 부르라는말을 하지않아도 몸짓과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며 화음을 붙여 멋진 합창으로 이끌어간다.

본질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욕망은 같으나 문명이 발달함에따라 그기회가 줄어드는것은 사실이다. 서울 뒷골목 대폿집에나 가면 술이 얼근히 취한후「섬마을 처녀」,「신라의 달밤」,「목포의 눈물」등 고독하고 비극적인 노래소리가 젓가락 장단에 맞춰 흘러나온다. 화음(和音)없는 제창으로 나오는 슬프고애수띤 노래, 단조(短調)를 좋아하는 즉 단선을 애호민족으로 되어버린 모양이다.

이것은 우리민족이 겪어온 발자취가 너무나 어두웠던 탓인 것같다.

이곳에 이민온 우리일세들의 모임에서도 역시 흘러간 노래들을 즐겨부른다. 그러나 2세들은 완전히 달라지고있다.

여기에서 듣고배운 명랑하고 활기가있는 소리들이다.

음악감각도 젊은이들로부터 바뀌어 지는것만 같다.

기회는 누가 만들어주는것이 아니라 자기스스로찾아야만 한다. 노래를 부른다는것은 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수있고, 남과같이 즐거움을 나눌수있는 것이다.

어느장소이건 상관없다. 예를들어 교회에나가 찬송가(성가)를 큰 소리로 부를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신부 구함

당년 27세된 미혼청년 으로 토론토에 계시는 부모님과 누님들을 방문중이 온데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으신 신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군입대때 대학중퇴를 하였으며, 키는 층척은 편이나 피부는 흰편이며,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하며, 수월한 대인관계 성격의 소유자 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주위환경과·생활력을 갖추고 있읍니다. 뜻이 계시는 분께서는 아래주소로 연락주시면 (성함, 주소, 전화번호)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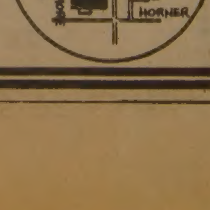
P. O. BOX 1100, STATION "B"
REXDALE, ONT. M9V 2B3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CASH & CARRY

Mar.24-Apr.10

Delsey toilet paper	24x2's	$17.29
Palmolive liq. cleaner	24x500ml.	26.39
Purina dog chow	10x2kg.	20.25
Allen's apple juice	12x48oz.	14.39
Pamper's toddler	12x24's	56.39
McCormick's peg top candy	12xper(box)	7.90



한인연합상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영화「불전차」 문제있다

패배속에도 진정한 승리있어

◆편집자주—이글은 82년도 아카데미 최우수영화작품상을 탄 『불전차』(Chariots of Fire)에 대한 비평이다. 필자는 현재 블루어·스트릿 연합교회에 시무중인 클리포드·엘리옷 목사다.

성공적인 영화 『불전차』는 요즘 여러 교회에서 이상적인 기독교적 영화라고 권장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이 영화의 배경은 일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 헌신적 기독교인 『에릭』과 유태인 『해롤드』는 젊은 달리기 선수로서 서로 경쟁을 하며 올림픽출전의 의지로 꿈을 불태우고 있다.우리는 이들 두 젊은이가·서로 같은 경기에 출전, 둘중에 하나가 지면 어떻게 하나 마음조린다. 결국에는 이들이 서로 다른 경기에 출전, 둘 다 이긴다.

에릭의 신앙은 소박하고 성실하다. 그는 일요일은 주의날이며 이 신앙에 조금이라도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 이것이 그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올림픽에서 본선진출결정을 하는 경기가 일요일로 정해진다. 『에릭』은 이 경기에 참가를 거부한다. 영국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대영제국의 영광을 위해 그의 신앙을 희생하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에릭은 요지부동이다.

다가올 재난은 『에릭』의 동료선수가 자기에게 배당된 목요일의 경기를 『에릭』에게 양보함으로써 피할 수 있게 된다. 『에릭』은 뛰어 이긴다. 그는 결과적으로 2가지 영웅이 된다.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와 올림픽 챔피온이 되어 국가적 영웅이 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 영화의 치명적 약점이 놓여있다. 이 영화가 뜻하는 바는 확고하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는 주제다. 에릭은 그가 달리기의 정열때문에 하나님에의 충성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애인에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나 『에릭』이 그토록 열렬하게 신앙하는 예수그리스도는 일반 세상적 기준으로 측정할 때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당시 세속역사에 각주(footnote)에나 오를만치 미미한 존재로 일생을 마쳤다.

『불전차』를 보면서 나는 만약 올림픽에서 에릭을 위해 다른 날에 경기가 마련되지 않고 그가 좌절과 불명예로 고향에 돌아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하고 자문해 본다. 만약 그가 최선을 다해 달렸으나 패배했으면 이같은 이야기가 영화화될 수 있을까?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중의 하나는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전각들이 해변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다. 배경음악으로 웅장한 합창이 펼쳐지는 동안 이들의 얼굴은 정상으로 향하는 기쁨으로 가득찬 열정이 어린 한폭의 그림같다.

만약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이같은 신체적 극치의 축제를 보았을 때 그리고 『에릭』의 아버지가 "우리는 사람들이 기립하여 경의를 표하게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크리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때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자를 높이 세워 강한자를 무색케 만든다"라는 성서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경멸하는 것도 아니며 최고를 향한 분투를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위와 같은 것을 우상화한데 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중의 하나가 "기만당한 것같은 느낌을 가지고 극장문을 나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날 세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을 엄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핵무기 경쟁의 공포, 지구자원의 무부별한 수탈, 수백만명의 절망적기아상태와 미친듯한 물질추구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관용, 심지어 같이 날 뛰는데 있다.

주일날 뛰는 것을 거부한 것은 1924년당시 모든 것(사회상,시대정신)의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신념에 굳게 선 사람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요즈음의 크리스천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와 "주여,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결국에는 승리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우리로 하여금 소위 세상에서 흔히 패배라고 불리어지는 곳에서만 진정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해 눈먼 사람이 되게할 우려가 없지 않다.

◆작품상을 탄 영화 "불 전차"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㉘

고 마테오

보좌신부의 첫 시련

주님은 묵묵하셨다.그순간 부리노와 대화하며 긴장된 탓으로 얼어붙었던술기운이 온 몸안에 일시에 살아나 몸을 가눔할수없을정도로 나는 취해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내방까지 간신히와서 자리에 눕자 정신을 잃어 버렸다."

그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나를깨워 눈을떠보니 기이에 본당신부가 걱정되는표정으로 거기에 서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해도 나게게는 힘이없었다. 그때 그분은 내 침대 언저리에 앉으며 다정한 음성으로내게말했다.

"태오신부. 어떻게됐소? 어젯밤 걱정이되어 두어번 당신을 찾아왔으나 술냄새를 풍기며 정신없이 자고 있더군요."

"어제 부리노와 술시합을 했는데. 둘이서 위스키 두병을 마셨읍니다. 결국우리의 술시합은 무승부로끝났으나「아스랑고지」는 무너지기 시작했읍니다. 제가 이미 그 고지의 일각을 점령한것이나 다름 없읍니다."

"장한일이오! 어느신부도 접근하지 못했던 부리노와 두시간 이상이나 대화하며 위스키 두병을 같이 마셨다니 정말이지 당신은 영웅적인 일을했소."

기이에 신부는 회색이만연하여 기뻐했다.

"최후의 대결전을 오는 토요일저녁 다시하기로 했읍니다. 아직 안심할수는없으나 자신합니다. 그는 나에게 마음의문을 열었으며, 나는 왜 그가 교회와 신부들을 그처럼 미워하는지의 이유를 알았읍니다. 적의정체와 약점을안 이상에는기습전을 전개하여 단숨에점령해야 합니다.

"훌륭한 작전계획이오. 그런데 차기전투를위해 당신은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해야만 되겠는데… 당신은 어제 저녁식사도 안했지요?"

"안한것이 아니라 못했읍니다."

"그럼 내가 곧 식사준비를 시키리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자유로이 쉬시오."

나는 문제의 토요일까지 3일간을 별로 하는일없 이 쉬었다. 본당의 동료 신부들중 누구하나 부리노와의 있었던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새로부임해온 말딴 보좌신부치고는 행동이 대담하며 어딘가 건방져보인다고 그들은 수근거리고 있었다. 게다가 기이에 본당신부가 항상 내입장을감싸줘 그들은 은근히 나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일 없는듯 태연하게지냈다.

예약된 토요일저녁 나는 1957년산의 보오쫄래 포도주 2병을 사들고 부리노를 찾아갔다. 그러나 나를 맞이하는 그의태도는 상상외로 도전적이었고 냉정했다. 나는 그와의 대결전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직감했다. 그는 나의 다정한 인사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부엌에 마련된 식탁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때 거기에있던 마담 아스랑이 뭔가 미안해하며 애원하듯 말했다.

"신부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하게 생각할것 없읍니다. 평상시에 당신들이 식사하는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는 식사준비가 소홀해 마담 아스랑이 미안하게생각하는줄로 알았다.

"닥쳐! 넌 아이들하고방으로 꺼지지 못해? 미안이고 지랄이고 어디있어!"

부리노의 입에서는 짐승같은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담 아스랑은 한마디 반항없이 겁먹은 표정으로 떨고있는 아이들을 데리고방으로 사라졌다.

"태오신부, 여기앉아! 우린 가난해서 별로 차린것이 없네. 가져온 술이나 내놓게!"

그는 나에게 명령조로말했다. 나도 얼결에 그가하라는대로 하고있었다. 그는 술병마개를 따더니 자기술잔에만 가득히 술을따르고 내 앞으로 술병을 밀어놨다. 그리고 소리쳤다.

"뭘 우물거리고 있나? 원하는 만큼 술을따라 마시게나. 그리고 국이나 어서들게."

나는 예기치 못했던 부리노의 작전이 있음을 알아차렸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뭣인지 알길이 없었다. 나는 생각을 계속하며 술잔에 포도주를따라 한모금 마셨다. 그리고 국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다. 나는 생각을 계속하였다. 그날 국은 배추와 감자로된 것이었다. 그런데이상했다. 국사발 바닥에 뭔가 검은물체가 있었고, 거기서 피같은 붉은액체가번져나와 국 평면에 깔리고 있었다. 나는 수저로 그 검은 물체를 건져냈다.

그런데 그것은?…그 것은 내 창자 저 깊이에서올아쳐 올라오는 구토증을일게한「쥐대가리」였다. 그것도 이제 막 죽어 피가흐르는 쥐대가리였다. 정신이아찔해 졌다. 그리고 그순간 마담 아스랑이 미안해하던 표정과 또 부리노가 포악스럽게 말하던 그것들이뭣을 뜻하고 있었는지 알게됐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처신해야만 된단 말인가?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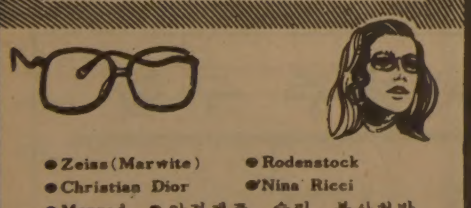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블루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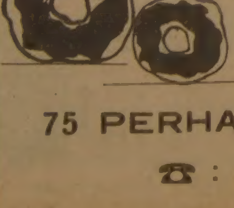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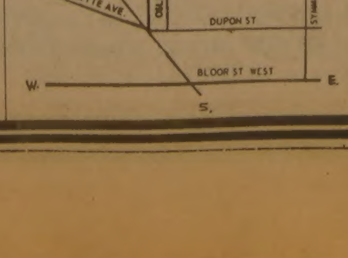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Annette's Donuts Ltd.
=QUALITY·SERVICE, RELIABILITY=
◎도넛츠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온갖 종류의 도넛츠를 취급합니다.
●YEAST FILLED 종류
●YEAST RAISED 종류
●FANCIES 종류
●각종 CAKE 종류
●스페샬 JELLY FILLED CAKE 도넛츠 종류
●CRULLERS 종류
●MUFFINS 종류





75 PERHAM AVE. TOR.
☎ : 656-3444

공 고

1981년도조합원총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은 작년5월말에 대망의 자산 100만불을 돌파하였고, 금년 1월말로 2백만불을 돌파하여 순조로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이는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께서 내 조합으로서 애용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당조합 정관제3조1항및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1981 년도 조합원 총회를 아 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1년4월8일(목)오후6시30분
곳 : 한인신용조합 사무실(641A Bloor St. W.)
의제 : •이사회 보고 •업무보고 •대출위원회보고 •감사위원회보고 •정관개정 •사업계획및 임원선출
※회의참석시 통장을 지참, 혹은 구좌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인신용조합이사회
간사 : 윤호영

主犯 文富軾·金恩淑 검거

原州잠복…神父권유로 自首

釜山 放火사건 14일만에 해결

背後·사건全貌 밝혀질듯

공개수배중인 文富軾(25·부산高神大4년)과 金恩淑(24·여·〃)이 1일하오 2시30분께 강원原州에서 검거됐다. 이로써 지난달18일 부산에서 발생했던 美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은 발생 14일만에 모두 해결됐다. 이들은 이날 原州에있는 신부집에 숨어있다가 O신부의 권유로자수, 수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文의검거로 부산사건과 관련, 검거된범인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李鎬喆제외) 주범들이 검거됨에따라 사건의 배후와 전모가 곧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한편경찰은 1일하오 4시를 기해 부산과각시도의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전국경찰의 비상근무령도 해제했다.

◇金恩淑

◇文富軾

◇추가 구속된 金志禧

釜山女大 金志禧양 追加검거

【釜山=盧基昌기자】美문화원방화사건 수사본부는 1일 방화조의 일원으로 김영현이란 이름으로 수배된 金志禧(23·釜山女大국어교육과3년·釜山東萊區壽山3洞2 139의50)를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또 釜山여대 화장실 불온낙서사건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釜山女大생 5명도 이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추궁중이다.

金志禧의 방에서는 金의 글씨체로 보이는 각개전투주간위장요령, 은폐요령, 주간 이동수칙, 관측요령, 돌격시 행동등의 각개전투전술이 적힌 종이쪽지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金이 방화할때 이용하기위해 각개전투요령을 익힌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李美玉·金志禧·崔寅純등 3명에 대해 선 방화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일단구속한뒤 국가보안법을 적용 조사키로하고 유인물살포조인 朴顧植, 崔忠彦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거된 범인 8명

◇지휘 ▲文富軾 ▲金恩淑(24·〃) ◇방화조 ▲李美玉(22·부산高神大4년) ▲崔寅純(22·부산大약대2년) ▲金志禧(23·부산女大국어교육과3년) ◇유인물살포조 ▲崔忠彦(19·高神大의예과2년) ▲朴顧植(20·〃) ◇자금책 ▲金화식(26·〃卒)

오늘 전국總·學長긴급會議

최근 學園사태등 논의

문교부는 부산美문화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일부 대학생의 좌경화 현상등에 대한 종합적인 학원대책을 논의하기위해 2일 전국 총·학장회의를 긴급소집키로 했다.

李奎浩장관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는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98개 총·학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輸出증가세 鈍化

1·4分期 7%신장불과

세계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등으로 수출신장률이 떨어지고있다.

1일 상공부가집계한 3월중 수출실적은 17억8천8백만달러로 작년3월중보다 5·9%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올들어 3월말까지 총실적은 48억3천4백만달러로 작년동기의 45억1천8백만달러보다 7·0%가 증가했는데 이는당초 기대했던 10%신장률보다 낮은것이다. 3월중 실적도 작년엔 80년보다 15·7%나 증가했었다.

한편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신용장(LC) 내도액을 보면 3월중엔 16억9천5백만달러밖에 들어오지않아 작년보다 7·9%가 줄어들었다. 올들어 3월말까지의 총실적도 43억9천7백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8·1%가 줄었다. 작년의 경우는 3월중 실적이 18억4천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7·1%, 1~3월간 누계는 47억8천6백만달러로 전년보다 23·7%가 증가했었다.

이처럼 수출증가세가 둔화된것은▲지난해 경기하강으로 민간의 실질소득이 떨어진데다 인플레억제를위한 각국의긴축노력으로 총수요가 줄었고▲국제적高金利때문에 투자심리까지위축됨으로써 세계경기가 아직도침체를 벗어나지못하고 있는한편 각국이 국제수지적자를 방어키위해 무역장벽을 쌓고있으며 달러화강세로 우리나라 통화가국제시장서 상대적으로 높이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출둔화세를 만회키위해 최근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각종 부수적인 수출촉진대책을 마련중이다.

모든幼兒院 새마을서 흡수

교육制度 體系化 유치원은 文敎部서 관장

86년까지 幼兒·유치원 5천9백2개 확충

정부는 1일 지금까지 다원화돼있는 전국의 유아교육사설을 체계화하고 현재 14·7%인 취원율(유치원과 유아원포함)을 38%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유아교육진흥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추진될 계획에의하면 이기간중 총2천2백69억원의 예산을 들여 5천9백2개소의 교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

이에따라 문교부는 유치원을, 내무부는 보사부가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던 농번기 유아원등을 흡수 통합, 새마을운동 시책에 의한 유아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교육시설은 마을금고, 교육휴시설을 활용, 점차 확대하며 도시변두리지역과 농어촌등에 중점을두어 도시변두리는 83년까지 6백35개소, 농어촌은 85년까지 5백60개소를 설치하고 부모의능력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라도 부담시켜 자립정신을 고취키로 했다.

교육내용은 유치원은 교육에, 유아원은 보육에 중점을 두며 대상아동은 4~5세이나 3세이하의 경우는 탁아기능도 갖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아교육에관한 유아교육진흥법을 금년내로 제정, 유아교육기관 교사 교육대상등에 관한 기본적사항을 규정키로 했다.

⋮유아원⋮ 내무부는 종전에 주관해온 새마을협동유아원2백63개, 보사부의어린이집 6백91개, 농진청의 농번기상설유아원 3백82개소를 모두 새마을유아원으로통합운영한다.

私設유치원 施設규모 완화

⋮유치원⋮ 사설유치원의 시설기준을 대폭완화, ▲현재 전국의 2천여개에달하는 무인가 유치원을 오는4월부터 조건부로 양성화시키며 ▲연1회로 한정된 취원시기를 3·6·9월등 3회로 확대하고 ▲전일제수업을 도입, 상오·하오등 몇차례에나누어 수업을할수 있도록했다.

유치원의 시설기준은 현재 건물지상 최하층면적 2·5배인것을 1배로, 유희실도 1백32평방m를 50평방m로 완화시키는한편 교실과 겸용할수있도록했다.

⋮교사·교구⋮ 우수한교사확보를위해자격 기준을 통일, 자격등급과 경력에따라 보수를통일하고 올해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을실시, 전국9개소에서 16주간의 연수를 시킨다.

취원순위는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및 영세민자녀, 2순위는 맞벌이가정및 가정보육에어려움이있는자녀이고 3순위는일반시민자녀로한다.

美友情使節團 총재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1일 하오 청와대에서 友情의사절단 국제본부의 웨인·스미드 총재를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수여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李光杓문공장관, 金容休총무처장관과 朴東鎭 韓美친선회회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세계무역센터협회의 구이·토졸리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徐錫俊상공장관과 申秉鉉무역협회 회장이 배석했다.

蘇에 진정한 軍縮協商촉구

레이건,年內頂上회담 용의

【워싱턴1日AP·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31일 소련이 명백한 『核우위』를 확보하고있다고 선언, 美蘇양국에 즉각적인 核동결을촉구한 최근 일부 美의원들의 제의를 『위험한것』으로 일축하고 대신 美蘇양국간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쌍방간의 점진적 핵감축을 주장한 美의회의 또다른 제의에 지지를 표명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밤(한국시간 1일상오10시)전국에 중계된 TV회견을 통해 또 엘살바도르사태에 언급,만약 엘살바도르에 새로운 右翼聯政이 구성되면 미국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줄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계류중인 두개의 核감축 관련제의에 언급하는 가운데 美蘇양국에 즉각적인 核동결을 촉구한 일부의원의 제의는 소련을 核무기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협상으로 끌어낼 『유인』을 제거해버리는 위험한것이라고 거부했다.

그는 核무기를 극적으로 감축시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자신의 목표이나 에드워드·케네디의원등 24명의 진보파상원의원이 제출한 이제의가 소련이 核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현상태에서 미국에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 소련이 진정한 군축협상에 참여할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 여름내로 美蘇정상회담을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臨時國會 또소집

民正, 9월이전에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1일 오는9월 정기국회이전에 한 차례의 임시국회를 소집할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총무는 또『常任委는 의제가 있을때마다 수시로 열겠으며 4월중 各상임위개최 여부는 야당측과 협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中共, 美서 對臺灣 武器판매 强行하면

"駐美 大使철수하겠다"

【北京31日AP=聯合】미국이 臺灣에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을경우 중공은 駐美중공대사의 철수를 고려할것이라고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이 31일 시사했다.

중공의 보도기관들과 관리들은 중공이 취할 구체적 행동을 밝히지 않은채 美·중공관계가 퇴보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차례 공식언급한바있으나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강행에 대한 중공의 구체적 대응조치를 가장 명확히 시사하기는 新華社통신의 이날 보도가 처음이었다.

中共은 과거 잠수함을 臺灣에 판매한 네덜란드정부에대해 北京주재 네덜란드대사의 소환을요구함으로써 對네덜란드관계를 격하시킨바 있다.

新華社통신은 이날 호주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의 사설을 인용,『對臺灣무기판매가 강행될경우, 중공이 駐美大使철수를 단행할것같다』는 내용을보도함으로써 中共의 의도를간접적으로 그러나 명백히 시사했다.

對美유착 清算땐 金日成, 訪日용의

【東京1日聯合】北傀 金日成은 일본이 美國과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自主化된다면 일본을 방문하고싶다는 의사를밝힌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31일 金日成이 平壤을 방문중인 소위『조선 자주평화통일지지 日本위원회』이와이·아끼라(岩井章·總評고문)등 대표단일행과 회견도중 『日本이 자주화되어 第3세계를 원조해준다면 그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게돼 전쟁의 필요성도 없게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抗癌前線…本社記者의 現地리포트

◇오는 9월 시애틀에서 열릴 제13회 국제암회의의장 윌리엄·허친슨박사(右)와 인터뷰하는 鄭逸和기자.

社告

癌이 무너진다

오늘부터 週1~2회 連載

美癌연구소 醫學정보 深層취재

한국일보社는 인류최대 관심사의 하나인「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癌이 무너진다」를 오늘부터 10회에 걸쳐 특집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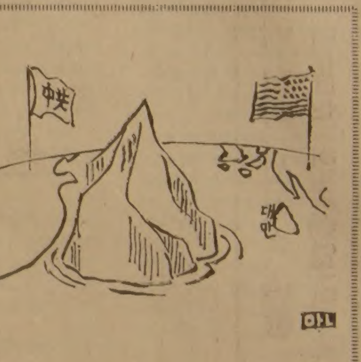
지난 73년의「癌을 征服한다」, 75년의「癌의 世界」에 이어 7년만에 마련하는 大型 의학리포트인「癌이 무너진다」는 抗癌戰爭이 뜨겁게 불붙고있는 미국의 癌정복 最前線을 본사 鄭逸和기자가 2개월여에 걸쳐 현지취재해서 엮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週1~2회씩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鄭지자는 이 시리즈 취재를 위해 지난 2월8일~12일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全美癌協會의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그후 세계적인 첨단을 걷는 미국각지의 癌연구기관과 병원의 심장부 깊숙이 뛰어들어 癌이 급속한 속도로 정복되어 가고있는 현황을 확인하고, 인류가 癌을 이겨낼수 있다는 신념을 얻을수 있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癌에 대해 관심을 갖는것 만으로도 이미 癌을 절반쯤 이긴것」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抗癌前線의 최신의학정보는 물론 그곳에 쏟는 인간의 意志와 努力을 생생하게 전달할「癌이 무너진다」에 독자 여러분의 애독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갑자기 氷山이…

地平線

크렘리놀러지(Kremlinology)라는말이 있다。소련의 정치나 사회내막을 연구、분석하는것을말한다。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공식발표외는 인사나 정책의 수립과정이 발표되지않는다。그때문에 정부나 당의 고위직인사가 공식석상에 안나타나면 이러저러한 추측이 나돌게마련이다。▼때로는 그요직에 가까운 소식통이 힌트를 주는 수도있고 또 발표된 사진의 배열로 크렘린안의 변동을 읽어 보기도한다。스탈린과 몇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윈스턴·처칠은 알다가도 모르는것이 러시아사람들이라면서 「나는 러시아의 행동을 예측할수가 없다。그들은 미스터리에 싸인 수수께끼같아서 이해할수가 없기때문이」라고 말했다。▼엊그제는 브레즈네프(75)가 알려지지않은 질병으로 지난 25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있다는 소식이 퍼졌다。3월 한달동안 과중한 공식행사참석을 강행한 브레즈네프가 지난25일 다슈켄트방문때 TV에 전한모습이 방영된데 반해、크렘린으로 돌아온 모습은 비쳐지지 않은데서 와병설은 나왔다。심장병에 중렸다는 동안 브레즈네프의 중태설은 그동안 심심치않게 유포됐었다。고령인 브레즈네프신변에 심상치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소식이 쉴새없이 그렇게하게 나도는판인것이다。▼그의딸 갈리나·추르노바의 해외서커스공연을 둘러싼 뇌물스캔들관련설、브」의 아들인 對外무역성차관 유리·브레즈네프의 공금유용혐의설、처남이자 비밀경찰2인자였던 세미온·초비군의독직사건과 의문의 사망등이 잇달아 알려졌다。측근인 여권국장과 노조책임자 시바에프와 도프가 퇴진하는가하면 주간지「오로라」에 실린 「군올때가 돼도 그것을 생각못하는 어느작가」라는 글이 브레즈네프를 풍자한것이라고 하는 말도 떠돈다。▼執權18年에 접어든 브레즈네프가 그의 오른팔이던 수슬로프사망이후 급격히 노쇠해졌으며 권력후계를 둘러싼 크렘린안의 암투도 심해졌다는 추측이 표면화했다。「브」의 후계자로는 정치국서열 2인자인 킬리렌코(75)나 3인자체르네코(70)가 유망하다는설이 한때 있었지만 고령이기때문에 집권해도 잠정적일것이라는 주석이 붙어다녔다。결국은 레닌그라드黨서기로마노프(59)나 농업담당서기 고르바체프(51)가 부상하지않을까 하는게 서방세계의 관측들이다。▼브레즈네프 집권의 長壽비결은 포드고르니 逐出등에서 볼수있는 교묘한 인사정책에 있다고도 하지만 정치국원14명의 평균수명이 70세이고 보면 조만간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것은 기정사실일듯하다。아뭏든 자꾸 뭣이 잦으면 뭣이 나온다는 속담처럼 늙은 곰의 중태설이 번질나게 입에 오르는 것으로 보아 크렘린에 亂氣流가 흐르고있는 것은 확실한것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MOZART COLLEGE OF MUSIC

✡ 음악원생 모집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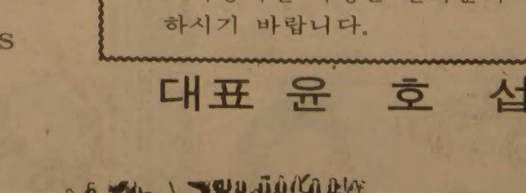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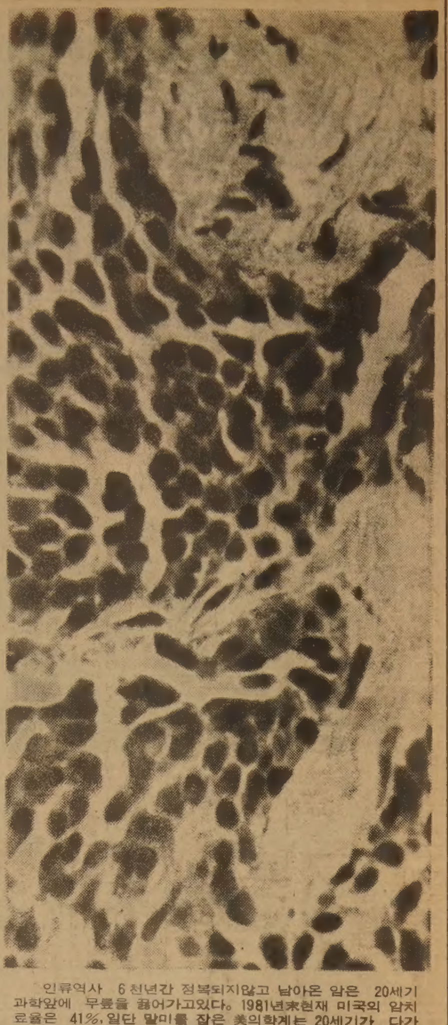
대표 윤 호 섭



癌이 무너진다 〈1〉

세계의 抗癌前線…本社기자의 現地리포트

"今世紀안에「죽는病」의 恐怖에서 해방될수있다"自信



인류역사 6천년간 정복되지않고 남아온 암은 20세기 과학앞에 무릎을 꿇어가고있다。1981년末현재 미국의 암치료율은 41%, 일단 말미를 잡은 美의학계는 20세기가 다가기전에 암을 완치할것이라고 믿고있다。사진은 암의 초기증상을 보이는 폐세포.

「生存者」들의 캠페인도「征服」재촉

암은 정복된다. 적어도 암정복의 개척자役을 맡고있는 미국의 암전문의들이나 암정책담당자들은 금세기가 다가기전에 인류를 암의 공포에서 해방시킬것이라고 자신하고있다。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자들의 抗암캠페인도 미국암정복의 큰動因이 되고 있다. 자네트·허바드는 4자녀를둔 올해 35세의 주부。그는 로스앤젤레스에있는 南가주대학 부속병원의 암치료자협회 홍보책을맡고있으면서 가는곳마다 암은 정복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자네트가 치료불가능으로 알려졌던 白血病에 걸린것은 그가 13세때인 1959년. 본인이 白血病인것을 알면 생존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이에게 병명을 알려서는 안된다는 당시의 의사권고에따라 10년간 빈혈이라고 병명을 속이면서 암과 투쟁했다. 새약이 개발될때마다 값비싸게 이를 구입해 먹었으며 방사선도 수없이 쬐었다.

"人間피는노랑다"

자네트는 언젠가 생물시간에 자기피가 노란것을보고 그것이 약물로 인한 변화인지도 모른채『인간의 피는 노랗다』라고 써 언제나 만점을 받던 생물점수를 그르친일도 있었다.

그는 15년투암생활중 약물로 수십번 머리가 빠졌으며 토하기가 일쑤였고 암이 부르트고 검푸러지면 피부병이 생기는 과로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암을 이겼으며 지금은 건설업자인 남편의 충실한 내조자로, 4어린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있다.

미국의 抗癌투쟁은 정부예산에서부터 역력하다. 1982년도 국립암연구소(NCI) 예산은 11억9천2백만달러(약9천9억원)。

5천억달러를 넘는 美연방예산전체에 비하면 절대액수자체는 대단한것이 못된다. 그러나 레이건행정부의 축소예산정책에따라 삭제되거나 삭감되지않은 예산부문이 거의 없는 지경인데도 암예산만은 국립암연구소(NCI)가 당초 올린 예산요구서에서 한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정부·의회의 항암투쟁에대한 지원열의가 얼마나 강한것인가를 과시하고있다.

82회계연도예산중 예산원안이 그대로 통과된것은 국방비와 NCI예산 두종목밖에 없다.

한해 40萬사망…憎惡의 標的으로

국립癌연구소가 司令塔, 온세계와 情報·資料 교환

연구資料도 엄청

의학계의 항암투쟁은 거의 狂信的수준에 가깝다. 미전국에는 거의 매3개월마다 크고 작은 암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수백종의 전문및 일반 암관계인쇄물이 분주히 교환되고있다.

抗癌戰의 사령탑역을 맡고 있는 국립암연구소는 미전국에 분산투자한 연구기관들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전국에 전문보고서를 전달하고있다. NCI는 연구결과를「사실보고서」(Fact Sheet),「최신뉴스」(Update),「연구성명서」(Statement)등 정기간행물형식의 논문지에 실어 미전국과 세계로 전파하고있다.

2월현재 NCI뉴스배부함에 꽂혀있는 연구결과보고서만 봐도 그양이 엄청나다.

『遊離된 노동자들의 암발생률과 그 원인』,『인터페론연구의 現況』,『고환암의 새로운 수술법』등 15종의 최신암정보지가 FACT SHEET라는 題號아래 배부되고 있으며 UPDATE라는 간행물은 최신암정보로『자체골수이식법의 진전현황』(Autologous Bone marrow Transplantation),『인터페론의 임상실험연구결과』,『술과식도암과의 새로운 관계』,『암이 걸리기 쉬운 家計』(A Cancer-prone Family)등 8권의 최신암정보지를 꽂아두고있었다.

STATEMENT 이름으로는『軟조직 육종치료법』(Soft Tissue Sarcoma Therapy),『白血病이 걸리기쉬운 체질』등 3종의 연구서가 배부되고있다. 國立保健院(NIH)에서 나오는 암관계자료도 흠뻑 쌓여있다.

이 자료들은 국립암연구소 뉴스배부자명단에 올라 암전문가들에게 자동적으로 보내질뿐아니라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에 수시로 보낸다.

한국일보에 제공

한국의사가 암인구란 NCI정보장 로버트·J·애비마씨에게 NCI홍보국 배부명단에 없었다. NCI홍보국보」를 배부처명단에 포함해줄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고맙게하겠다』고 기꺼이 응낙했다.

NCI는 1971년 전국암방법(National Cancer Act of 1971)이 통과된후 대통령의 직접통제를 받으면서 착실히 對癌戰을 수행, 지난 10년간의 암정복결과를 정리한『암발견의 10년』(Decade of Discovery)를 내놓았는데 미국인들은 이책이 나온후 비로소『암은 정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게됐다.

『암발견의 10년』은 지난10년간 美암학계가 평균 20%의 암치유율증가를 보였으며 미국여성의 가장 큰 살인자인 유방암의 경우 10년전만해도 유방암에 걸리기만하면 極端수술(Radical Operation)이라하여 해당유방과 겨드랑밑의 임파腺까지 잘라내고도 생존율은 25%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초기유방암은 92%까지 유방의 형태를 흐트러지지않고 치료하고 있다는등의 확실한 암정복노력의 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대학병원암전문의로 구성돼있는 美암연구소협회(AACI)는 年1회의 정기총회외에 빠르면 3개월마다, 보통6개월마다 小위원회를 열어 항암투쟁의 정보를 교환한다.

美암협회(ACS)는 美전국에 2백50만회원을 갖고있으면서 年예산1억7천만달러로 3천1백28개지부를 운영, 왕성한 암정보교환업무를 수행하고있다. ACS는 미국의 암발생률, 사망률, 치료율, 새로운 암치료법등을 소개한『암의 현실과 통계』(CFF)를 매년 발행하며 자체정보망인 美암협뉴스서비스(ACSNS)를 통해「새로운 암발견법」,「인터페론의 새기능」등 전문이론, 일반정보를 배부하고있다. 오는 9월8일부터 15일까지는 워싱턴州 시애틀에 있는 허친슨종합암연구소주관으로 제13회 국제암회의(ICC)가 열린다. 허친슨종합암연구소는 골수이식수술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병원。올해 73세인 윌리엄·허친슨소장은『작년에 열린 세계대회이후 우리는 많은 새연구결과를 얻고있다. 세계대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망할놈의 암」을 때려잡기위한 정보를 이번대회에서 많이 교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11억달러의 예산으로 미국의 암정복 운동을 지휘하고있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워싱턴 교외의 국립보건원 구내에 있다.

종합연구소만 20個所 5천분의1確率두고 新藥연구

평균治癒率 41%

미국에는 암의종합적연구, 치료, 교수등 3개분야를 완전히 갖춘 종합암연구소가 20개있다. 이 20개의 종합연구소는 개별적으로 연구결과의 발표, 암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들을 넘어 벌인다.

미국의 크고 작은 암병원에는 암으로부터 살아난 암생존자들이 조직돼있다. 이들은 입원한 암환자들을 위로하고 병원청소도 해주며 또 암병동에 꽃꽂이를 하기도하는데 이들이 벌이는 항암캠페인도 결코 미약하다고는 볼수없다.

텍사스의 MD앤더슨암완치자협회는 81년한해동안 2만달러의 연구자금을 모아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미국암전문가들의 항암투쟁을 하나는 지난 수십년간에 이룩한 눈부신 크게보아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수십년간에 이룩한 눈부신 암정복을위한 성적기록。82년2월 美암협회(ACS)가 발행한『암의사실과 통계』(Cancer Facts & Figures)자료에 따르면 81년현재 미국의 암치료율은 41%인것으로 나타났다.

암이 인류역사에서 발견된것은 기록에 나타난것만으로도 고대이집트문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20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암은「죽는병」으로만 남아왔다.

2차대전중 戰爭用 독가스로 만들어진 질소머스타드(겨자)가스가 참으로 우연히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도 한다는것이 발견된후 본격적인 암약개발이 시작됐고 방사선 치료기술, 수술의 개발등으로 암치료율은 해마다 진전돼왔다.

암전문의들에대한 투자는 그만큼 성공을 거둬왔고 또 앞으로도 거둘것이 확실하다. 1980년 한해동안 미국암협회의 연구자금을 받은 과학자중 3명이 노벨賞을 수상하기도했다.

의학계는 한때 심장병연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듯했다. 심장을 이식하거나 심장자체를 改造할수만 있으면 人間의생명을 再창조하는것과 같은것이어서 야심있는 의학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심장이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것이 드러났고 또 심장병자체도 암만한것은 다 알아냈다.

公認된藥만 50種

대신 암은 아직도 안개속에있다. 우선 왜 암이 발생하는지의 病原學자체부터가 영점지대로 남아있다.

암정복노력은 거의 全面角度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암발생원인만 발견하면 인류를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수있다는 전제아래 病原學에만 평생을 보내는 학자들이 미국암예방학회에는 수없이 모여있다.

지금 미국에는 약50종의 공인된 암약이 나와있다. 약물연구자들은 보다 강력한 암약개발을 위해 이 50여종의 약을 다시 배합하여 동물실험, 인체의 실험투입등 긴 연구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복잡한 연구과정에도 불구하고 새암약을 개발할 가능성은 5천번에 한번이 될까말까하다. 그러나 존스·홉킨스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5천분의 1의 확률을 쫓고 끈덕지게 새약개발을 추진하고있다.

필라델피아 어린이암센터의 존·유하스박사는 암약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방법만을 20년째 연구하고있다.

암세포를 죽이지못하는 이유는 암약의 효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암약이 정상세포를 파괴하기때문에 암약을 마음껏 투입하지 못해서 암을 정복하지 못하는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어쨌든 20세기후반에 들어오기시작한 과학자들의 항암노력은 과학자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갖다주었으며 또 인류를 암의 공포로부터 크게 완화시켜주었다.

79년말현재 암환자의 5년이상생존치료율은 폐암11%, 유방암73%, 직장암50%, 전립선암68%, 자궁경부암65%, 방광암70%, 위암15%, 자궁암84%, 췌장암3%, 급성백혈병18%, 만성백혈병40%, 복합골수암22%, 軟조직육종34%, 홉킨즈병72%, 고환암77%등으로 향상됐다.

死亡者數는 急增

미국의 암관계자들을 초긴장으로 몰아넣는 두번째이유는 암치료율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암으로인한 절대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는것이다.

암치료율이 1900년대에 5% 1930년대에 25%이었던데비해 1980년 현재의 치료율이 41%라면 분명히 괄목할만한 발전이었지만 어떻게된셈인지 암환자율이 덩달아 늘어 절대암사망자수가 줄어들지않는데 문제가있다.

1981년 한해동안 미국에서는 총42만1천명이 암으로 죽었다. 80년에는 41만3천명, 그리고 79년에는 40만5천명이 암사망자였다.

美國의 현황

超緊縮의 레이건行政府도 國防예산과 癌연구비 12억弗은 안깎아

워싱턴DC=鄭逸和기자

77년현재 암으로인한 사망자는 미국전체사망자의 두번째순으로 심장병이 첫째인 37.8%이고 다음이 암사망자로 20.4%이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UCLA)암연구소장 리처드·스테를의 분석처럼 심장병은 사실 노령·쇠약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死因이『심장경색증』등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사망률이 높을뿐이며 실상은 암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암치료율이 5%이내에 머물던 1900년대의 미국의 암으로인한 사망률은 전체사망자중 10위권을 벗어나있었으며 암치료율 25%이던 1930년까지만해도 암사망률은 심장병, 폐염, 감기, 사고사, 간경화증등다음인 세6순위에 머물고있었다.

發生원인 追跡도

암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아직도 발견되지않고있다.

암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잡고있는 발생원인은 ①유전적요인 ②음식요인 ③환경적요인으로 구분되고있다.

모계의 4촌이내에 유방암을 앓은 경험자가 2명이상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확률이 50%이상이라든가 고체성육류(소·돼지·양고기등)를 많이 섭취하면 방광암 또는 유방암에 더 잘걸리며 石綿공장 노동자들은 폐암에 잘걸린다는등의 가능한 이유를 모아 분류한것이다.

그러나 3가지 원인중 결정적인 연관성을 아직 찾지는 못하고있어 막연히『그럴것』이라는 정도에 그친다.

미국암협회(ACS)는 1959년부터 72년까지 1백7만8천8백94명의 조사자를 대상으로『암의 발생 원인』을 추적한바 있다.

암의 원인이라고 의심받아온 담배, 머리염색제, 공기오염, 소아마비왁친, SALK, 早婚, 비만증, 多産, 수면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긴조사를 실시했다.

1979년 최종발표된 결과는결국『담배가 폐암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하나의 결론만 내고말았다. 남자의 폐암은 담배기계가 생겨난 1920년대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도 흡연이 보편화된 1945년께부터 폐암환자가 늘어났다고 이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 암전문가들은『적어도 담배만은 안피워야 한다』는 것은 암예방을 위한 신앙쯤으로 생각한다.

절대 겁먹지말라

일단 암의증상이 있거나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겁을먹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암을 증오해야한다.『미국의 암관계전문가들이 쌓은 암에대한 증오는 드디어 적을 무너뜨리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당면과제는 암환자도 암을 증오하게 하는것이다』라고 베이어드·모리슨3세 국립암연구소 부소장은 말하면서『암의 정복은 암의 증오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실제 증오감을 갖는것이 암치료의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있다. 조지워싱턴大암전문의 필립·헤인은 암환자중 암을 증오하거나 심지어 암을 치료하는 의사까지를 미워한 환자가 완치자중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암은 더이상 공포의 대상도 아니며 또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이는 증오의 대상인것이다.

美NCI公認 癌의 자기진단법

①非정상적出血 ②멍울이생긴다 ③傷處가오래간다 ④大·小便습관변동 ⑤목이쉬고 기분나쁜 기침계속 ⑥소화가 안된다 ⑦피부에 혹이나 사마귀가생긴다

아무症狀없는수많아 初期진단 어렵지만 自覺증상느낄때 專門醫찾아도 늦지않다

암은 초기단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어떤 암세포는 3·4년간 아무해없이 세포속에 몸츠리고 앉았다가 결국 병을 일으키는것도 있어 초기진단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처음 自覺증상을 느낄때만 암전문의를 찾아도 늦지는 않다.

어떤 위암환자는 위암증세를 처음 느낀후 친구의사를 찾아갔다가 소화제 몇봉을주며『괜찮다』라는 오진을 받은후 4개월을 지났다. 4개월후 아무래도 이상하여 암전문의를 찾아갔을때 암세포는 이미 2期로 접어들고있었다.

1기위암의 치료율이 80%라면 2기 치료율은 40%로 떨어진다.

첫암증상이 나타났을때 즉각 전문의에게로 달려가는것이 생명을 건지는 길이다.

미국국립암연구소가 公認하고있는 7가지 암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린다. 여자는 생리이외에 어떤 下血이라도 있으면 일단 검사받아볼 필요가 있다. ②젖가슴이나 신체의 어딘가에 멍울이 진다. ③하찮게 보이는 상처가 낫질않는다. ④소·대변습관이 갑자기 바뀐다. ⑤목이 쉬고 기분나쁜 기침이 계속된다. ⑥소화가 안되거나 음식물을 삼키기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⑦피부에 작은 혹이 생겨났거나 사마귀가 갑자기 커진다.

이런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100%암은 절대아니다. 한 암병원의 통계에따르면『암의 자각증상』을 느낀다고 찾아온 사람중 불과 7%가 진짜 암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것이 7%라는 낮은 암발견율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것은 아니다. 첫 암증세를 느꼈을때 서슴없이 암전문의를 찾아가 암이 발견된 사람은 생명을 건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암을 진단하는기술도 최근크게 발달했다. CT스캔이라는 기계가 나와 불과 1시간이면 인체의 세포가 붙은 전신체부를 입체적으로 사진찍어내며 신체내부를 ……

최종적으로는 암을 확인할수있는것은 조직검사밖에없다. 외부에 드러난 유방癌이건 위·간암등 신체내부의 종양이건간에 조직을 떼어내 암세포를 확인하기까지는 절대로 암이라는 진단을 할수 없다.

신체내부의 종양은 內視鏡끝에 달린 날카로운 칼끝으로 조직일부를 뜯어내 실험실에서 악성인지 良性인지를 검사한다.

10回에 걸쳐 시리즈 連載
다음回는「허친슨癌연구원」르포

『癌이 무너진다』는 모두 10회연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는 미국 워싱턴州시애틀市에 있는『허친슨종합癌연구원』의 방문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骨髓이식수술과 肝癌수술에서 세계적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연구원은 시애틀이 낳은 인기야구선수 프레드·허친슨이 癌으로 쓰러진후 그를 기념하여 생긴 癌전문병원으로, 현재 프레드의 형인 윌리엄·허친슨이 원장으로 있습니다. 허친슨연구원은 설립동기에서 보듯이 癌정복의 의지와 집념이 남다른, 거의 전투적인 병원입니다. 『癌이 무너진다』시리즈는 앞으로 ①미국의 현황 ②허친슨癌연구원 ③워싱턴大병원 ④슬론·케터링병원 ⑤필라델피아의 이론 ⑥조지타운大 ⑦홉킨즈병원 ⑧MD앤더슨연구소 ⑨스탠퍼드大 ⑩抗癌前線總評으로 펼쳐집니다. 문의는 한국일보 특집부(☎724151交248)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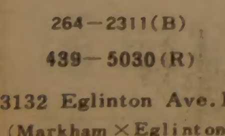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조의문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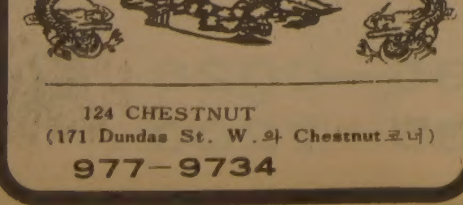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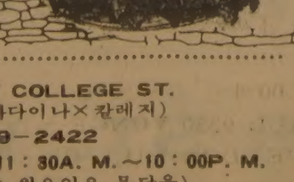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京華樓
(경 화 루)
PEKING-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샾, 기프트샾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대형聖殿 보다는 "人間건축" 힘써야

基督敎일각에 自省의소리

◇한국교회는 성전건축에만 전력할것이아니라 인간건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때 바른 성장을 할수있다. 사진은 작년 서울여의도의 부활절연합예배장소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기도하고있는 기독교인들。

"가난한 이웃은 누가 돌볼것인가"

마치 거인나라의 사람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해가고 있는 한국기독교계에서 비대화에 대해 自省하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들어 열린 크고작은 기독교모임에서 일부교회의 하나님사업을 빙자한 기업성, 이상 대형화,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교파분열, 그리고 교회로 바쳐지는 헌금이 교회내부치장이나 대형 성전을 짓는데만 주로 사용되고있으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별로사용되지않고 있는 점등을 비판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어떤 큰 교회의 서리집사를 하고있는 延世大 田榮五교수는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있는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당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고 교회의 비대화에따른 문제점과 아픈 상처들을 속속 지적했다.

이 공개서한은 장로선출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 주보에 게재된 목회자들의 명예박사표시, 헌금과 구제내용의 지나친 광고, 기념사업으로 사놓는 토지문제등에대해 언급하면서 얼마나 기독교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성경을통해 예수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가르침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생각해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헌금은 거의 교회치장에문혀

復活節맞아 새風土 조성해야

교회에서의 많은 잡음은 헌금을 어떻게 뜻있게 쓰느냐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수가 많은데 어느신학자는 이 많은 헌금이 모두 콘크리트속에 꽁꽁 파묻어버린다면 가난한 이웃은 누가 돌볼것이냐고 개탄한 적이 있다.

『한국개신교 1백주년 뒤의 한국교회는 교회건축에만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아니고 문서운동을통한 인간건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돼야 할것이다』

이말은 한국크리스천 문학가 협회장이던 金京洙목사(昌峴교회)가 회원들의 신앙에세이집 서문에서 밝힌 귀절이다.

요즘 교계에서 발표되는 문서나 세미나를보면 으레 기독교의 이상대형화 문제가 들추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 팽창요소의하나인 성령운동의 샤머니즘을 우려하는가 하면 個교회주의적 목회풍토를 한결같이 반성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교회성장의 무드 속에서 교인들의 자세가 지나칠정도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것은 新福신앙의 풍토가낳은 부산물이라는게 韓神大학장 朴根遠박사의 지적이다.

초창기부터 한국교회의 선교정책자체가 무조건 많이 모여야하고 교회예산도 倍加돼야 한다는 풍조때문에 그리스도共同體로서 키워가지 못하고 個教會 만능주의로 흐르게됐다는것.

교회의 급성장 못지않게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교파분열로 많은교단으로 늘어난 한국개신교는 지난 75년부터 부활절연합예배를 실시, 밖으로 협력을 과시하고있다.

특히 금년의경우 선교1백주년을 앞에놓고 범교단이 모여 기도하도록 준비하고있으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찬송가를 똑같이 들고나오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인쇄단계에 이르러 교단간의이해에 휘말리자 통일찬송가의꿈은 다시 깨지고말았다. 불가불 서울여의도광장에서는 합동·개편·새찬송가등을 제각기 들고나오지 않을수없이 되었다.

부활절예배를 같이 드리는것은 개신교교회들이 분열의 과오를청산하고 하나님앞에 한형제자매로서,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를이루는 연합운동의기틀을 자리는데 그뜻이 있다. 그런데도 이해상관에 얽혀 하나를 다짐하다가도 금방갈라지고마는풍조는 시급히 고쳐야한다는게 교계의 중론이다.

요즘 기독교계에서 일고 있는 自省의 소리는 어떤 반대를 위한 비판은 결코 아니다. 교회성장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해서 시정해나가는데 오늘의 선교과제가 있다는 여론을 귀담아들어야할 것이다. 【李忠雨기자】

改新敎 부활절 연합예배

11일상오 5시반 汝矣島

개신교 20개교단의 부활절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오는11일 상오5시반 서울 汝矣島광장에서 열린다.

한국교회 1백주년을 앞두고 서울시내 80만신도가참가하게될 이번 연합예배는 대회장 吳慶麟목사(감리교 감독회장)의 사회로 개막되어 기독교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민족복음화의 결의를새롭게 다짐하게 된다.

예배순서는 경찰악대의 주악속에 鄭晋慶목사(성결교회 총회장)의 기도, 실행위원장인 池元祥목사(루터교회 총회장)의 인사, 金世昌목사(예장大神)의 헌금기도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예배 설교는 姜元熙목사(침례회총회장), 성경봉독은 李義鎬목사(예장통합총무), 통성기도인도는 金永伯목사(나사렛교회 총회장), 축도는 金仁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가 각각 맡는다.

부활절연합예배를 갖기 시작한것은 지난76년부터로 올해로 7번째가 된다.

2백주년 마크公募

한국천주교 2백주년 주교위원회(위원장 尹恭熙대주교)는 가톨릭신문사와 공동으로 2백주년 主題심벌마크 기념노래 포스터등을 공모한다. 1차(80년7월) 2차(5월10일마감) 3차(추후발표)로 나누어 갖게되는 공모는 천주교 2백주년을 기해 이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줄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연락처 ☎9014。

한편 한국기독교 1백주년 기념사업 협의회(총재 韓景職목사)는 상징마크와 표어를 현상 공모한다. 마감은 5월10일까지.

東學사상硏 새理事

東學사상연구소(소장 柳錫琪)는 지난달로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같이 理事를 새로뽑았다. 李鉉淙(국사편찬위 편찬실장) 朱宗桓(東國大교수) 申福龍(建國大교수) 尹正吉(〃) 金北喆(평화산업대표) 朴來燻(한국연구〃) 柳鍾基(유진상사〃) 金鎬珍(前한국청년회장)

회장에 朴京鍾씨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朴京鍾, 부회장에 石庸源·張素哲·宋鉉熙씨, 상임이사에 金元植씨등을새로선출했다. 또 이날 새로 구성된 분과회장은 다음과 같다. ▲소설=康廷珪▲시=金芝鄕▲아동문학=劉永熙▲수필=李相寶▲번역=尹慶男▲평론=김우규▲희곡=金玆林▲시조=吳東春

異端서적 販禁을

한국기독교서점협회는 최근 발매중인 「예수는 결혼했었나」 「聖血과聖杯」등 이단서적에 대해 일체 사고팔지 말것을 각 서적상에게 당부했다. 기독교서점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책자가 聖書의 그릇된 해석으로 예수그리스도의 神聖에 도전함은 물론 그인격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이단서적인데서 취해진 것이다.

宗敎단체利用 전국潛行

光州 美文化院방화범 丁淳喆의 行跡

수배 朴啓東과 계속 연락

日에 密航 기도하다 失敗

서울선 旅人宿·공사장 전전긍긍

일부「가農」회원들과 犯行을 모의

釜山 美文화원방화사건의 제1용의자로 쫓기던 丁淳喆(27)은 지난25일 검거돼 일단 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수사결과 光州美文화원 방화사건을 저지른뒤 쫓겨다니는동안 학원소요 주동자로 수배중인 朴啓東(30)과 계속 연락을가졌고 일부종교계인사의 도움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했으며 조국을버리고 해외로 도주하려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丁은 영향력을 행사, 순수한 뜻에서 출발한 가톨릭농민회가 종교단체로서의 행동범주를벗어나 농민을 의식화하는 단체로 이용되게했을뿐아니라 심지어 신성한 가톨릭회관내에서 방화등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악랄한범행을 모의했음이 밝혀졌다.

지난80년12월9일밤9시에 일어난 光州美문화원방화사건은 丁淳喆이 일부가톨릭농민회원과 모의해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80년8월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光州분회장으로 취임한 丁은 그해12월6일 光州가톨릭센터내에서 가톨릭농민회원인 林鍾洙(23·全南大2) 金東爀(44·가농전남연합회 전회장) 朴時榮(21·가농회원) 尹鍾亨(21·가농회원) 金義言(무직) 등과 함께 「범행」을 추진했다.

이들은 가톨릭농민회가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기위한 光州시민의 항거에 호응하기로』하는데 합의하고 현정부를두둔하는 미국에 경종을울려주기위해 光州美문화원에 방화하자고 결의했었다는것.

범행당일밤 金東爀·朴時榮·尹鍾亨은 외곽에서 경계를하고 丁淳喆과 林鍾洙는 담을 넘어가 지붕으로 올라간뒤 기왓장 2장을 들어내고 지붕에 깔린 루핑을 면도칼로 도려낸다음 휘발유와 석유2되를붓고 불을 질렀다.

사건후 일당5명은 검거됐으나 丁은 그동안 친지 종교단체들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빠져다녔다.

丁은 서울로 올라와 여인숙과 구로공단 건축공사장등을 배회하다 81년1월5일 과거麗水에 살때 하숙을했던 H은행계장 丁모씨가 경영하는 핸드백제조공장인 통일산업에 들어가 총무로 6월2일까지 일하기도했다.

丁은 6월3일 水原가톨릭농민회를 찾아가 총무李모씨에게 光州분회장이며 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일으키고 도피중이라고 자신을 소개, 은신처를 부탁했으며 李씨가 安東가톨릭농민회에 연락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그로부터 여비로 5만원을 받은뒤 다음날 安東으로갔다.

丁은 安東가톨릭농민회에서 權모회장과 鄭모총무에게 은신처를부탁하자 이들은 『수고가많다』고 위로하면서 安東시내 마리스타수도원책임자인 멕시코인 수사를 찾아가 숨겨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이들의 요청을허락, 丁을 마르코란는 가명으로 은신시켜주었는데 얼마후 수도원에서 朴啓東을 소개받았다.

朴은 수도원이 안전하지 못하니 大邱시립희망원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 8월하순까지 朴과함께 지냈다. 朴은 일본의 후까미즈신부로부터 5백만원의 밀항자금을 받았는데 일본까지만 밀항하면 그뒤는 후까미즈신부가 [illegible]라며 함께 밀항할것을 제의했다.

8월하순 朴과함께 고속버스로三千浦에온 丁은 三千浦성당 金모신부를 찾아가 승낙을받고 사제관수사로 12월중순까지 숨어있었다.

丁은 12월중순 金신부에게 신도들로부터 의심받아 정체가 드러날 염려가있다며 大邱로 가겠다고말하고 전에있던 大邱시립희망원에 가서 지난1월14일까지 은신했다는것.

金신부의 연락을받은 丁은 1월14일 晉州로가 朴과 합류, 셋이서 전남高興郡道陽邑旺洞으로갔으며, 여관으로 가던중 경찰의미행을 감지, 도주했다. 이때 朴은 丁에게 20만원을 주었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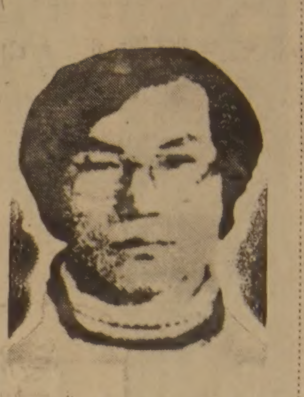
쫓기던 丁은 버스와열차로 順天 細里를거쳐 상경, 서울시내를 배회하다 1월21일 자신에게 영세를준 仁川道禾성당 황모신부에게 찾아갔다. 그러나 黃신부는 안전한곳이 못되니 병원에 입원하라며 18만원을 주었다.

黃신부의 안내로 富川市 성심병원에 갔으나 병이없다고 거절당했고 다음날富川제일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진단받아 입원할수있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치료비때문에 1월28일 퇴원, 丁은 2명의 군대후배를 찾아갔으나 돕기를 거절당했고 1월29일 鍾路區 樂園洞에있는 원불교 종로교당으로 金太欽교무를찾아가 은신을 부탁, 金교무가 靈山출장소 교무 김봉진씨에게 소개해 전남靈光郡白岫邑吉龍里에있는 영산출장소에 들어갈수 있었다.

이곳에서 작업간사로 이름을바꾸고 숨어있던 丁은 끝내 경찰에검거됐는데 수사결과丁은 그의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못한 일부세력의 비호를받아 은신이 가능했던것으로 분석된다.

丁과같은 숫법과 동기로 釜山 美文화원에 불을지른 주범이 아직 잡히지않고있다. 丁의 도피행적이 드러남에따라 이들을 숨겨주는 동조세력이 있다는것이 증명되고있는데 文富軾을 감춰주는사람이 있다면 빨리 제보해달라는 것이 경찰의 당부이기도하다.



◇光州美문화원방화범으로 검거된 丁淳喆。

브레즈네프 重病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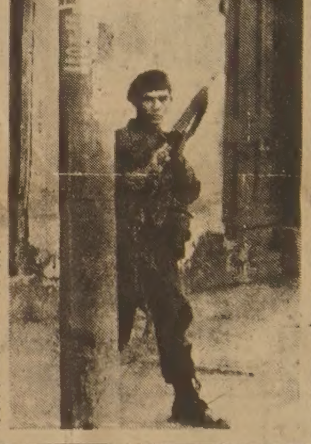
特別病院에 입원…公式日程취소

【모스크바31日AP·UPI=聯合】 3월 한달동안 과중한 공식행사참석을 강행, 건강이 악화된것으로 알려진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75)가 알려지지않은 질병으로 지난 25일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고 믿을만한 소련소식통들이 31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가 4일간의 타슈켄트방문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오자마자 소련고위지도자들의 전용병원인 크렘린부근의 특별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소련외무성은 브레즈네프의 건강에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있는데 브레즈네프가 중태에빠진것인지 아니면 과로후 단순히 휴식을취하고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브레즈네프의 중병설을 입증하는것은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알리·나세르·모하메드 南예멘 대통령의 소련방문이 취소된 것으로 소식통들은 비록 소련당국이 소련·南예멘간의 상호양해에 따라 이 방문이 취소된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브레즈네프가 중병을 앓고 있어 출영할수 없기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政府軍 공정대원

엘살바도르 제4의 도시 우술라탄에서 게릴라소탕전에 투입된 한정부군공정대원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고있다. 【우술라탄31일UPI特約=聯合】

駐佛 이大使館피격

3人組怪漢들 총탄세례

人命피해는없어

【파리31日AP=聯合】 기관총으로 무장한 복면괴한3명이 31일하오 파리중심가 개선문부근에있는 이스라엘대사관건물에 총탄세례를퍼부었으나 사상자는없었다고 파리경찰이 밝혔다.

목격자들은 차를 타고와 건물반대편거리에서 내린 복면괴한3명중 한명이 이스라엘공식무기 구매사절단이 묵고있는 대사관별관건물을 향해 25발가량의 기관총세례를 퍼부은뒤 동료2명과 함께 차를타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메아리

最後의 아마

「五輪旗는 거짓의 상징이다」 깜짝 놀랄 제목으로 20여년전 프랑스의 한 잡지가 올림피즘을 호되게 꾸짖었다. 아마추어리즘의 탈선을 묵인하고 한쪽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그때 IOC위원장인 브룬디지가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화가 불같이 치밀어 거액을들여 소송을 벌였다. 그는 승소했고 잡지는 공개사과문을 냈다. 배상금 1프랑도 물론 받았다.

옹고집의 이 「아마精神」은 때론 「시대착오의 챔피언」이란는 비꼬임을 받기도 했다. 불변의 아마추어리즘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눈총을 담은 비판이었다.

「최후의 아마」는 그 만년에 이런 말을 했다. 『오늘의 경기인들은 고급이랄까, 응석받이 같다. 전담코치, 트레이너, 의사, 전속안마사에 요리사까지 따르니…』 세상은 많이 변한다는 사실을 그는 털어 놓았다.

스포츠 아마추어리즘은 확실히 달라지고있다. 상업주의와 프로의 번창으로 「아마의 개념」은 자꾸 흔들린다. 체육인의 명예와 생활인의 현실이 갈등을 빚는다. 致富의 꿈보다 우선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이 아쉬운 선수가 많다.

어제 한국일보는 실의에 잠겨 있는 국가대표선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1억원이 걸린 中東行을 포기하고 대표선수의 사명감과 아마정신을 지키다 가정형편으로 좌절한것이다. 남자배구의 대들보인張允昌의 고통은 동정만으로 달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기회에 우리는 스포츠 육성에 관한 안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정인의 입장을 떠나 유망주나 대표선수의 관리·보호에 지금보다 차원을 달리해야 하겠다.

마라톤의 예도 그렇다. 신기록을 내면 큰돈을준다는 자극이 과연 아마 스포츠에 실효가 있는것일까…。현상금식의 시상이나 福券뽑기같은육성책은 결코 근본대책이 못된다.

스포츠의 아마정신은 자기가하는 운동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애정은 스포츠인 스스로가 지켜주고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 진다. 어려운 선수를 무조건 모두 도울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수생활보장기금같은 제도를 체육계는 한번 연구해 봄직하지 않는가…。

포클랜드群島로 英艦항진

【런던31日UPI特約=聯合】 영국언론들은 31일 영국해군 핵잠수함1척이 아르헨티나와 영토분쟁이 일고있는 남대서양의 영령 포클랜드 군도를 향해 출동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인디펜던트(ITN)TV는 헌터級 핵잠수함 1척이 6일전 지브롤터기지에서 출항, 남대서양으로 항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런던신문들은 소식통을 인용하지 않은 보도로 최소한 다른 1척의 잠수함이 남대서양으로 항진하고 있을지 모르며 포클랜드의 영토분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 카리브海및 지브롤터의 영국함대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있다고전했다.

南美대륙에서 7백24㎞떨어진 남대서양상에위치한 포클랜드군도는 목양·어로에생활을 의존하는 인구가희박한 지역인데 최근에는 해저유전이 유망한곳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外信안테나

◆샤론 이國防 訪埃계획延期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은 오는4월4일로 예정된 이집트방문계획을 연기했다고 이스라엘관리들이 31일 전했다. 샤론국방상은 2주전 이스라엘을 방문한 카말·하산·알리 이집트 부수상겸 외상의 초청으로 카이로를 방문, 이스라엘軍의 시나이 철수이후의 양국국경설정에 관한이견을 조정할 예정이었다. 【예루살렘=外信】

◆日, 國際電信요금引下=일본국제 전신전화회사(KDD)는 오는 5월1일부터 국제전화요금을평균9·6%, 국제텔렉스요금을 8·8%인하할 계획이라고 지난30일발표했다. 【東京=共同】

20억弗들여 「彈丸列車」개발

美 고속철도會社서

미국의 앰트랙철도회사와 민간투자단은 31일 미국의도시들을 잇게될 20억달러규모의 승객용고속열차를 개발하기위해 「고속철도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새회사는 첫번째 사업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간을 달릴 고속 「탄환열차」를 개발하고 이어 플로리다州, 텍사스州, 그리고 시카고지역에서의 고속열차운행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회사의 경영은 앰트랙社의 로런스·질슨개발담당 부사장이 맡게되며 뉴욕의 한 금융인과 몇명의 前철도산업계중역들이 경영에 참가한다.

질슨씨는 최종적인 재정조달방법이 아직불완전하나 미국과 외국투자가들로 구성된 투자단이 결성돼 주식관리를 맡게된다면서 자본금의 4분의3은 미국내에서 조달될것이라고 말했다.

★比, 보신탕根絶시키려 動物虐待처벌 復活

보신탕문제로 영국과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던 필리핀은 보신탕및 개학대를 근절시키기위해 지난39년의 미국식민지통치시대때 제정된 동물학대처벌법을 부활시키는 한편 이법을 철저히 실행키위해 특별단속경찰반까지 조직할 방침이다.

필리핀경찰군의 수도권사령부 사령관인 프로스페로·올리바스소장은 최근 보신탕용으로 개를 매매한 혐의로 13명을 구속했지만 이를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모두 석방해야하는등 고심하다가 과거의 모든 법률을 들추어 본 끝에 43년이나 지난 이법을 다행히 발견하게 됐다는것. 【마닐라=UPI】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소 잃고 난후 외양깐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㉒

레코드製作에 손대고 放學때는 元山김용환만나

◁1930년대의 가수 金龍煥。그와의 친교로 한때 가요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동생 金貞九를 가수의 길로 이끌었다.

1934년에서 1935년, 이 무렵 서울의 콜롬비아, 빅타, 포리돌, 씨에론등 레코드회사는 몇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東京에 취입차 오곤했다.

왕수복, 김인숙, 채규엽, 김용환등은 당시 이름난 가수들이다. 이들과는 늘 가까이 지냈으므로 그들이 東京에 올때마다 여관으로 찾아가 반갑도록 한국의 가요계와 영화 연극소식을 들었다. 李昌根 감독의 「돌아온 영혼」이 단성사에서, 安鍾和가 감독하고 신일선이 출연한 「청춘의 十字路」가 조선극장에서 개봉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당시 포리돌레코드사의 문예부장 왕평(王平)이 김용환이 부를 외국영화주제가와 외국가요의 가사번역을 부탁해왔다. 10여편의 외국가사를 번역했고 우리말 가사도썼다.

히비야공회당에서 포리돌 신작발표회가 있었다. 쇼지다로(東海林太郞)라는 일본가수가 「국경의거리」(國境の町)라는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고 김용환이 후일 李花子가 불러 히트한 「꼴망태목동」을 불러 인기를 모았다. 「국경의 거리」는 그후 일본전역에서 찌어내는대로 음반이 매진돼 일본음반계의 역사에 남는 히트곡이 되었다. 이화자가 부른 「꼴망태목동」음 역시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음반이다. 이무렵 콜롬비아에는 채규엽, 빅타에는 임헌익, 포리돌에는 김용환, 씨에론에는 최남용이 각각 인기가수로 각광을 받고있었다.

「국경의 거리」를 작곡한 호소가와준이치(細川潤一)씨는 그후 나와 꽤 가까운 친교를 갖게되었다. 이러한 친교가 계기가 돼 1935년 나는 레코드계에 발을 들여놓게됐다. 생각해보면 나는 외도를 너무 많이 한 학생이다. 두마리의 토끼를 쫓는 자가 되고만 것이다.

왕평 김용환 채규엽 최남용등 당시 한국가요계를 주름잡던 이들은 모두 세상을 뜬지 오래다. 아득한 추억속에 그들의 노래소리만이 생생하게 남아있을뿐이다. 지금도 가끔 내귀전에 김용환의 노래가 들려온다. 그의 노래는 누구도 흉내낼수없는 애수와 그리움이 담겨있다. 한국인의 정서와 흙냄새가 물씬풍기는 민족적인 노래다. 그와 가까와서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가수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발견하지못했다.

해방후 그가 이끌던 태평양가극단이 한동안 향기를 띠고 뻗어나가 이무렵 그는 돌연 세상을 떴다. 내가 발굴하고 내가 키운 가수 金貞九의 얼굴에서 나는 늘 그의 형 김용환의 모습과 노래소리를 듣는듯하다.

1935년 여름 내가 학부졸업반때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元山해수욕장에 갔다. 현재 梨花女大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오페라가수 金慈璟 교수댁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김용환과 매일같이 만났다. 김용환, 그의 부인 정재덕 누이동생 김안라 그리고 김정구등 일가족은 노래솜씨가 훌륭했다. 정재덕은 元山루씨고녀를 나온 수재로서 그미모와 더불어 포리돌의 인기가수로 뚜렷했고 김안라는 동경 중앙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신유꾸(新宿)에 있는 물랭루지극장에서 소프라노가수로 활약하던 여성이다. 김정구는 교회찬양대원으로 李興烈선생밑에서 성악공부를 한 청년이다.

이 음악가족들과 어울려서 해금강구경을 나섰다. 이 5인조 음악멤버가 무전여행을 떠난셈이다. 우선 내금강 온정리에 도착했다. 교회당을 빌어서 유행가, 외국민요, 오페라가곡, 기타독주등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몽땅 털어놓는 음악회를 열었다. 김용환의 「낙동강 7백리」, 김안라의 「라트라비아타」, 정재덕의 「돌아오라소렌토」 김정구의 「오소레미오」, 반주는 김용환이 오르간, 내가 기타를 쳤다. 외국인 피서객들이 몰려 와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약간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장전, 고성등을 거쳐 해금강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름방학을 보냈다. 이제 명사십리를 가볼길없고 총석정도 아쉬운 추억속에 남아있을뿐이다. 온정리솔밭과 그 맑은 계곡물은 영위히 내 망막에 남아있으리라.

블론디 — 本社特約·連載漫畫 — 딘·영 作

"날 완두콩대가리라고 부른데대해 사과를 받아야겠읍니다!" —쾅— "미안하네, 대그우드" "새대가리라고 부르려했는데 그만 그렇게 됐네!" "여태까지 받아본 사과중 가장 맘에 안드는건데"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빈틈이 없구나。'

한송희 <경기남양주군 구리읍 교문7리>

孤獨한 英雄 ③

流星의 賦 <34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유극랑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격심한 충격이었다. 계남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유 조방장은 도강에 반대했다고 하지않았나』

『유 조방장에 관해선 소인이 잘알고 있읍니다』

하고 권태복이란 대졸이 앞으로 나왔다.

『소상하게 말해보라』

『예, 유 조방장께선 도강에 반대하셨지만 일단 작전이 그렇게 된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며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읍니다. 나는 유 조방장의 대열에 속해 있었읍니다. 우리가 탄 배가 강 중류쯤에 이르렀을 때 조방장께선, 반드시 복병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하선하자마자 저편 언덕으로 뛰어가서 그 지형을 의지하여 사태를 본 연후 행동하라는 명령이 있었읍니다. 그 명령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조방장께선 복병이 좌편에서 나타나자, 용 내가 죽을 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하시고 대궁(大弓)을 휘어잡아 몰려오는 적을 향해 쏘았읍니다. 그 화살에 아마 수십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방장은 우리들에게 빨리 저 언덕으로 뛰어가서 싸움태세를 취하라고 소릴 질렀읍니다. 우리들이 그 언덕에 도착하여 돌아보니 유 조방장께서 이놈을 왜적놈아 내 구천에 있을망정 네놈들을 가만 두진 않을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곤 쓰러지셨읍니다. 참으로 장렬한 최후였읍니다』

계남은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생각도 않고

『그래 그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왜병이 목을베어 갔읍니다』

『그냥 가만 두었느냐』

『중과부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흠』

하고 한동안 묵묵해있다가 계남이 신음하듯말했다.

『그 동체만이라도 찾을수없을까』

『아마 무망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

『지금쯤 왜적이 시체를 치워버렸을겁니다』

『그럼 있는 곳만 알면』

『그것도 모르겠읍니다. 쓰러지신 곳은 바위 옆이었는데 뒤에 보니 거긴 벌써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슬프구나』

계남이 중얼거렸다.

『유 조방장의 전사를 슬프다고 하는것이 아니다. 전쟁이있으면 전사도 있게마련이니까. 내가슬프다고하는것은 장수가 쓰러졌는데도 부하들이 그 유해하나 간수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사실이다. 그만한 장수이면 그만한 부하가 있어야하는 것이거늘. 오호 슬프다』

십구야의 달이 벌써 중천에있었다.

계남은 그달을 보고, 달빛에 물든 산하를 둘러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소국의 현재를 위해서.

보람없이 죽어간 유극량의 운명을 위해서.

수많은 전사자, 앞으로있을 전사자를 위해서.

[illegible] 위해서.

[illegible] 통곡으로 변했다.

明暗 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기욱은 키가 훤칠하고 이마가 수려하고 눈빛이 예리했다.

『남기욱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리한 눈빛이 부끄럼 타는 것처럼 자신없이 흔들리니까 귀염성스러운 인상으로 변했다.

『얘야, 너도 일어나야지. 남자의 인사를 앉아서 받는 법이 어디 있냐?』

외할머니가 멍하니 앉아있는 수지에게 핀잔을 주었다.

『한수지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얼떨결에 일어선 수지는 고개를 까딱하고 이렇게 말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대기도 하고 숨 죽여 킬킬대기도 했다. 수지에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보였다. 두 사람 다 얼떨결에 무대로 끌려나온 대역배우처럼 그 다음 동작을 몰라 울상을 지었다.

『이제, 그만 앉으렴。글쎄 우리 기욱인 저렇게 순진해빠졌다니까. 저 나이에 여자앞에서 쩔쩔 맬줄 밖에 모르니 재가 삼년씩이나 미국물 먹은걸 누가 믿어줄지 원. 미국서도 연애 한번 못했다니 미국유학 말짱 헛 했지 쯧쯧』

누님이 이렇게 슬쩍 동생흉을 본척 하면서 선전을 하니까 거기 질세라 영란이 나섰다.

『고모도 그만 앉구려。우리 고모야말로 숫보기라우。우리 그이가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행여 덜끝이라도 다칠세라 어찌나 구식으로 엄하게 단속을 했던지 남녀공학 한번 대학을 육년씩이나 다니는동안 어디가서 남자목소리로 전화 한통 오는걸 못받아 봤으니 우리 고모야말로 대학원까지 헛 다녔다니까』

『그런 소리말아라。미국유학이나 대학원이 연애 공부하는데라던? 근지 있는 집 자식들은 아무데 갔다놔도 제몸 단속부터 하는 법이야』

외할머니가 기욱과 수지의 섭을 들었다. 순진한 남자와 숫보기 여자는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는듯이 양가 식구들의 수군수군과 킥킥킥은 더욱 더 즐거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손님중의 친척집아이가 들고있던 풍선을 놓쳤다. 식장에서 많이 팔던 얼굴이 그려진 풍선은 천장에 올라붙어서 좌중을 내려다 보았다. 계집아이도 어린 마음에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이 더 재미있는지 풍선을 떼달라고 조르지않았다. 잊혀진 풍선은 내 낯짝이 아무리 희극적이라도 인간들의 희극에야 어찌 당할까보냐는듯이 김 빠진 얼굴로 천장을 흐느적 흐느적 부유했다.

수지보기에 기욱은 잘생긴 남자였으며 KS마크에다 미국유학까지 마친 학벌을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겨우 서른살이었으며 차남이었으며 그의 부모는 인자하고 교양있어 보였으며, 그 형은 부유해 보였으며, 그의 형수는 화려하고 사교적으로보였으며, 그의 누님과 그 밖의 식구들도 마음씨가 착하고 근심없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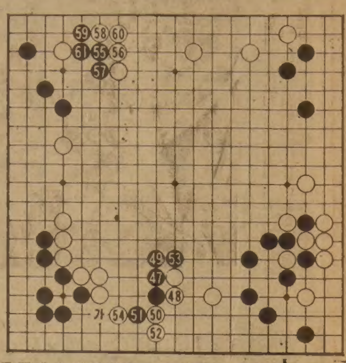
아아, 그들에 비하면 인재와 인재 어머니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가.

이좋은 날, 장안의 이름난 음식집이란 음식집은 모조리 졸업생과 그 하객들에 의해 점거당한 이 흥청거리는날, 어느 쓸쓸하고 외진 싸구려 음식점에서 곰탕뚝배기를 앞에 놓고 마주앉아 노파는 아들의 뚝배기에 고기건더기를 덜어주려고, 아들은 노파의뚝배기에 국물을 덜어 주려고 눈치보다가 드디어 눈물부라리는 모자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이상한 사람들에대한 연민인지 그리움인지 모르게 수지마음을 쓰리게했다.

---

*한국일보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4譜 47~61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3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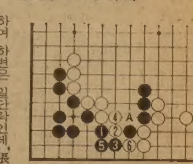
黑(6段) 張秀英〈3勝1敗〉

黑47를 본 徐7단은 35분가량 곰곰생각하고 白48。이싯점에서의 강수였다。

이수를 53쪽으로 밀고올라가면 黑이 당장 48의곳을 꼬부려 白의모양이 파괴된다。따라서 白52까지는 누가두어도 이렇게 될 자리인데 여기서 張6단은 손길을 멈췄다。

자, 어떻게 할것인가。黑「가」로 젖혀 연결을 피하면서 실상 白의연결을 차단하느냐 결국 45분을 소비한 끝에 黑53。하지만 이수는 국후에 약간의 비평을 샀다。즉 참고도처럼 黑1로 우선 白을 분단하고 볼일이라는 것이다。張6단은 그러나 참고도의 黑1은 白2이하6이면 다음「A」의 곳을 잇는 변화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다만 국후에는『한번 白을끊어볼것을 그랬다』며 이근처는 중론에 승복하고 있었다。

白軍、左右연결로 安定



여하간 黑53때문에 白은 54한점으로 좌우가 연결되어 한시름놓게 되었다。이리하여 하변은 일단락인데, 張6단은 아마도 선수를얻어 좌상을 黑55로침입하는구상에 매력이 컸을지도모른다。

白58로 직접70에 젖히는것은 黑이 60자리를 젖혀이으면 실리면에서 白이 손해。

黑은 61까지 이곳에서 최대의 수확을 해치웠지만 그대신 白은 하변에서 54를 둔때문에 유망판국세로 보인다。그리고 더욱 선수마저 잡게되었는데。【一凡】

❖ Factory Special Sale ❖

(기간) Apr. 12 ~ Apr. 24 (2주간)

Wagner (와그너) 피아노

월~금 : 9:00A.M. ~7:00P.M. 한국영창악기제
토 : 9:00A.M. ~5:00P.M.

제한수량이므로선착순세일합니다

G-157

그랜드피아노

Reg. $7,732
Spec. $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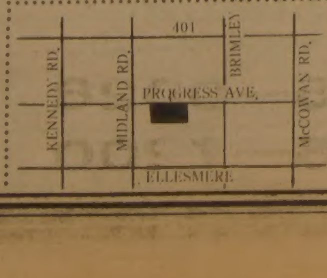
※ 와그너 피아노(4월5일자) 코드 No.는 G-157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각 유명업체및 대학교에서 애용중입니다.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Humber College (Toronto) Columbus Centre (Ontario)

DISTRIBUTED EXCLUSIVELY IN CANADA BY
YOUNGSTAR INTERNATIONAL INC.

주 소 : 315 PROGRESS AVE.
☎ : 298—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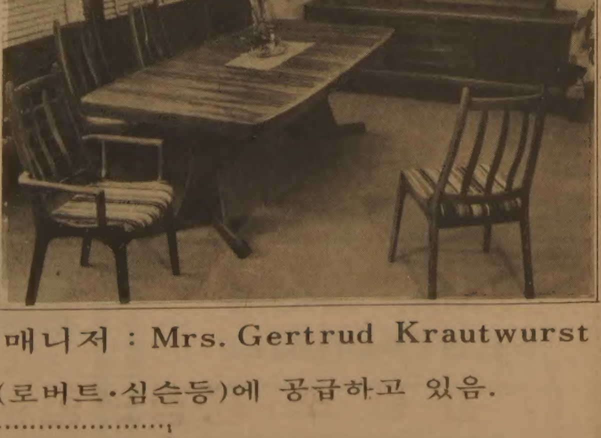
OWNER : 최 덕 준

John Krautwurst Furniture Ltd.

월~수 : 9:00A.M. ~5:00P.M.
목~금 : 9:00 〃 ~8:00 〃
토 : 10:00 〃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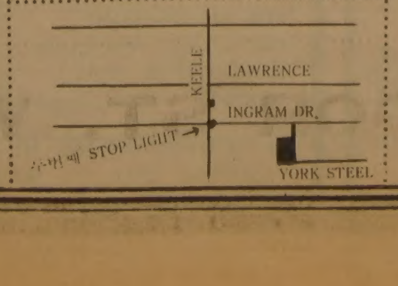
◎Life-time 가구
◎주문생산(Custom made)
◎금년 토론토가구쇼에서 인기집중
◎카나다유일의 최고급 Comporary 가구
◎Meister Collection

◎다이닝·룸 set
◎ Buffet Hutch
◎Living room set
◎베드·룸 set



매니저 : Mrs. Gertrud Krautwurst

◎고급가구점(로버트·심슨등)에 공급하고 있음.



JOHN KRAUTWURST
주 소 : 67 Ingram Dr.
☎ : 249—8261

水原·서울거쳐 原州잠입

美文化院放火사건 搜査網압축되자 친척집 轉轉

주범 文喜軾과 애인 金恩淑은 江原道에서 체포되기까지 2주동안 시시각각 좁혀지는 수사망과 국민들의 눈을피해 필사의 도주를 계속했다.

이들은 범행당일인 지난달 18일 현장에서 범행을 지휘한후 文은 자신의 자취방에, 金은 집에 각각 은신했다가 수사망이 압축되고 호구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0일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文은 지난달 20일 애인 金과 함께 부산시 西區 富民洞 2가11 자취방에 나타나 전기밥솥, 이불등을 보따리에 꾸린후 「좋은 곳으로 가겠다」며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이때 文은 집주인 김지우씨(79)로 부터 전세금 10만원중 7만5천원 만을 받아 황급히 떠났다. 이때부터 이들은 별도로 행동하거나 또는 도피중 서로 연락하여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文은 서울에, 金은 수원에 각각 친척등 연고선이 많은것으로 밝혀졌는데 金은 지난달26일 친동생(21)이 자취하고있는 S大 水原본교근처 자취방에 혼자나타나 동생에게 밥을해주고 사라졌다.

또 文은 서울 新村에서 친형이 관리인으로있는 신라당구장에 나타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도피중 부산에서 일단들이 흩어져 자신의 신분과 연고지가 드러나 서울, 水原등으로 수사망이 압축되자 原州의 친척집으로 도피했던것.

文은 지난77년 高神大에 입학했으나 부모가 이혼한후 2학년때 어머니가 사망, 가세가 기울자 자취방을 전전해왔다. 文은 재학중 2번이나 무단휴학을 했고 지난 2월에도 새학기 등록금을 내지못해 제적되었다.

또 지난79년 釜馬사태관련자로 조사를 받기도했고 하숙방, 자취집 주인 등에게도 항상 여러가지 가명을 사용했다.

한편 金은 부산에서 I여고를 졸업한후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홀어머니 崔모씨(51)의 권유에따라 79년高神大에 입학한뒤부터 文과가까와졌다.

金은 文이 조직한 미등록단체인 불온서클「샛별회」에 가입, 文의 자취방등을 전전하면서 이른바 「이념 서적」들을 탐독해왔고 이때 여고 3년에 재학중이던 李美玉(검거)을 포섭하는등 주로 여자회원 포섭 임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금년초부터 조직을 釜山시내 다른 대학에까지넓혀가기 시작했고 3월초에는 文의 자취방에서 美대사관방화를 음모했다.

한편 文은 최근 金과 결혼약속을하고 文의 어머니에게 金을 소개했다가 거절당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민물 담치」의 天敵을 찾아라

八堂댐등서 날로 번식 食水공급·發電방해

「민물담치」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개류(貝類)가 지난 수년사이에 漢江상류 八堂댐일대에서 크게번식, 서울시민의 식수공급을 방해하고 발전소의 용수까지 원활치못하게할 위험성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漢江변兩水里토박이인 崔泰鉉씨가 민물담치가 징그럽게 붙어있는 로프를 들어올리면서 혀를차고있다.

洛東江등 南部서도 번질조짐

斃死땐 人體유해毒素뿜어내

담수속의 돌이나 철관등 고정물에 착생(着生), 번성하는 이민물조개는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파괴에의한 부작용때문에 크게 늘어난것으로 八堂댐의경우 단2개밖에 없는 상수도취수구와 발전소의 유입구철관을 부분적으로 밀폐시킬 가능성이있어 자주제거하고있다는것.

이같은 민물담치의 공포는 이미 지난30년대부터 美洲와 유럽각국, 濠洲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일이있는데 천적(天敵)을 찾아 대처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경우 漢江이외에도 安東댐이 건설된 洛東江, 大淸湖, 南江댐등에도 곧 번성할것으로 보여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물담치의 제거방법에는 천적을 번식시키는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민물담치의 생태조차 파악하지못한 실정이어서 대형크레인까지 동원하는 원시적제거방법을 사용하고있다.

이에대해 담수어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물담치가 지난 30년래 漢江에서 일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나 그속성으로 미루어 댐을 막은뒤 생태계가 바뀌자 상류의 담수나 호수, 늪(沼)에서 크게 번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74년 완공된 한강八堂댐일대에는 담수되기전에는 별로 눈에띄지않았던 이민물담치가 지난80년대부터 곳곳에 대량으로달라붙어 번식하고있으며 수력발전소 취수구를 막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있다.

또 八堂광역상수도 취수장에까지 민물담치가 극성, 2천8백㎜초대형 취수관속에서 서식하고있으며 여기에차곡차곡 달라붙었던 담치떼가 강력한 수압으로인해 약95㎞나떨어진 서울江西區 新月洞 金浦가압장에까지 휩쓸려 내려오고있는데 어느정도 불어있는지는 취수구를 닫아야하기때문에 실태파악이 힘들다.

전문가들은 이 담수조개를 방치할경우 마침내는 상수도송수관과 수력발전소 취수구가 완전밀폐되거나 극도로좁아져 서울시민의 식수공급이 불가능하게되는 사태까지 유발할것으로보고있다.

특히 이 조개가 폐사될 경우 인체에 해독한 유해독소까지 배출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漢江상류의 민물담치 서식상황은 정확히 조사돼있지 않으나 관계자들은 번식속도가 너무빨라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八堂댐에서 수로로 약2㎞거리인 경기 楊平郡兩水里75 도선관리인 崔泰鉉씨(61)는 『이조개가 최근에 더욱 늘어 닻줄을 내려놓으면 며칠만에 새까맣게달라붙어 징그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곳 토박이인 崔씨는 『댐이 들어서기전엔 별로볼수없던 이 조개가 댐이 들어선이후 우연히 건져올린 나무 뿌리나 바위덩어리에는물론 모래와 맞닿은 배의 앞부분에도 까맣게 달라붙어 골치거리』라고 했다.

민물담치가 틈에휩쓸려 떠내려오는金浦가압지에서는껍질를모아 구내화단과 밭의 비료로 쓰고있을정도다.

한편 민물담치의폐해가 심각해지자 八堂댐관리자측은 서울대 산업기술개발공사는 서울대 명예교수 崔基哲박사와 崔박사의 차남 崔(?)교수(忠南大문리대)에게 용역을 주어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다.

二枚貝일종 바위등에 固着

한땐 유럽서도 恐怖의대상

해설 민물담치는 이매패(二枚貝)조개의 일종으로 족사(足絲)를 가지고강속의바위나나무뿌리에고착, 번식하며이때문에유속이급한여울대신물의흐름이불편한곳에서집단으로 서식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성패의 크기는 약3㎝, 수명은 3년정도 인데 식용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민물담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崔基哲박사는 『연구의 주안점이 민물담치의 생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물담치의 발생과정은 알에서부터 다음 단계인 담륜자(擔輪子)를 거쳐 피면자(被面子)、섬체로 자라난다.

모든 유해생물의 제거는 그 생활사나 발생과정을 알아야만 가능한데 민물담치는 이같은 발생과정중 어느단계에서 족사를 형성, 고형물에착생하는지 그 생태가 파악되지 않고있다는 것.

崔박사는 미국·호주등 조개파동을 먼저겪은 나라에서는▲염소처리 ▲기계작용 ▲전기적인 힘▲초음파발생 ▲고열가열등의 방법으로 상수도관에 착생하고있는 담치과 조개류를 제거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경제적인 염소처리가 효과적일수 있으나 상수도의 수원을버려놓는게 흠이라는것. 崔박사는 가장이상적인 퇴치방법은 돌고기、잉어、붕어、메기등 민물담치를 먹이로 하는 천적종류를 투입하는것이나 이것은민물담치의 숫자를 지금 상태로 막는데 그칠뿐 八堂湖가생기기전의 상태로 돌릴수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洙鎬기자】

28곳에 母子保健센터

奉化·梁山·莞島·高敞등 年內설립

보사부는 1일 의료시설이 미비한 농어촌지역 28개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올해안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모자보건센터는 농어촌지역 여성들에 대한 가족계획、피임지도、신생아건강관리분만및 산전산후관리등 각종 모자보건업무를 맡게된다.

보사부는 금년에 이어 84년까지 49개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증설할 계획이다.

금년에 설치될 모자보건센터 28개소중 지역이 확정된 24개소는 다음과 같다.

◇경기=楊平·金浦·江華·漣川 ◇강원=華川·楊口·旌善·陜城 ◇충북=永同·陰城 ◇충남=唐津·瑞山·洪城·安城·襄陽 ◇전북=高敞·扶安 ◇전남=莞島·和順·長城 ◇경북=奉化·尙州 ◇경남=梁山·巨濟·義昌

統營 安井寺주지집에 불

세母女 燒死

30代怪漢침입…怨恨의 放火인듯

【忠武】1일 새벽2시30분께 경남統營郡光道面安井里1388 安井寺 주지 송아태씨(57)집에서 불이나 송씨의 부인 박복순씨(51)와 8녀 현미양(11)、9녀 미숙양(8)등 3명이 불에타 숨지고 송씨의 7녀 미정양(19·統營女高2년)이 중화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가료중이다.

이날불은 송씨집 8평짜리 기와집1채를 모두 태워 1천만원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1시간만에 진화됐다.

미정양에따르면이날 어머니와함께 4식구가 잠을자던중 30대 괴한이 들어와 어머니 박씨를 무조건때리고 목을졸라 실신시킨뒤 자신을 때려 실신케했는데 깨어보니 불이붙고 있었다는것.

법화종소속인 安井寺는 지난해8월11일 조계종소속 김정덕스님(33·경남 泗川郡昆明面 鳳谷里604)측과 소유권문제로 시비가붙어 김씨가 불법침입혐의로 忠武경찰서에 구속되는등 잦은분쟁을 벌여왔다. 【聯】

浦項 연쇄殺人사건 原點에

犯人검거 현상금 1백만원

【浦項】浦項과迎日지방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있는 경찰은 1일 현상금 1백만원을 내걸었다. 【聯】

道場사범 토막殺害 犯人에 死刑을구형

【大邱】大邱지검 형사2부 趙在錫부장검사는 1일 大邱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李(?)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大邱당담관수석사범金正民씨(34) 살해범 鄭慶彦 피고인(22)에 대한 살인·시체손괴·시체유기죄 결심공판에서 鄭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鄭피고인은 지난해 9월26일 밤12시께 大邱市東區新川

숟가락등 土器類8점 발굴

禮安서、통일新羅유물 추정

【安東】安東郡禮安面乘仕2洞산596에서통일新羅시대의것으로추정되는청동발1점과 숟가락1개、젓가락1개、토기류5점등 모두8점이 발굴됐다.

安東郡禮安面舟津洞630 朴周緖씨(54)는지난31일마을뒷산에서 돌을캐내다흙속에 묻혀있던 8점의 문화재를 발굴, 군공보실에 신고했는데 군당국은 이 문화재를 慶州박물관에 감정의뢰했다.

청동발은 높이8㎝、지름14㎝、둘레45㎝이며 숟가락은 길이27㎝、젓가락은 24㎝이며 토기류5점은 모두 깨어진채 발굴됐다. 【聯】

慧哲 꼬마스님 手術 성공적

4주간 入院치료…"하루빨리 完快를"

심부전증(心不全症)으로 죽음의 문턱에섰던사미승 慧哲(15·속명宋富龍·한국일보 3월24일자11면보도) 스님이 불(佛)신도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1일상오11시 延世大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李雄求교수와 흉부외과 洪承祿박사팀의 공동집도로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던 꼬마스님은 성급히 달려온 6명의 신도들이 『어떠냐』고 묻자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사는것은 한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것과 같고 죽는것은 한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것과 같다)』라고 나즈막하게 대답하면서 『돈이없어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들이 많은데…』라며 합장했다.

이날 꼬마스님이 받은수술은 심장의 4개판막중에서 기능이 극도로약화된 승모판및 대동맥판의 구실을 해줄 인공판막2개를 이식하는것인데 실패율도 10%정도나 되는 어려운 시술이다.

수술에 들어가기전 수술실 입구에서 李박사가 『두렵지않느냐』고 물어보자 꼬마스님은 뜻밖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해주십시요』라고 차분하게 대답, 집도팀이 오히려 위로를 받을 정도였다.

李박사는 『수술경과는 좋지만 그동안 간·부정맥등에 합병증을 일으켜 앞으로도 4주가량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高麗증권前지점장등 셋구속

顧客이 맡긴 證券위탁금 8천여만원 流用

치안본부는 1일 고객이맡긴 증권매매 위탁금을 멋대로 빼내 유용한 고려 증권전 忠武路지점장 朴容圭씨(45)와 한국증권 전산주식회사 전총무과장 李鍾大씨(36)、채권판매업자 金榮旭씨(32)등 3명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지점장 朴씨는 金씨등과짜고 지난해8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7차례에걸쳐 위탁자출금청구서、위탁자증권 인출청구서를 위조해、고객金龍得씨가 위탁금으로 맡긴 현금5천5백45만원, 유가증권 3천만원등 모두 8천5백45만원을빼내 金씨에게 건네주었다는것.

金씨는 다시 이돈을 李씨에게 사채로 빌려주고 이자 6천만원을 받아쓴 혐의를 받고 있다.

會社침입 金庫깨고 1천5백만원 훔쳐

【釜山】1일상오 8시께 부산東區 草梁洞 1144의10 기아산업 부산지점 3층 관리사무실에 도둑이들어 대형금고를 부수고 현금 1천5백만원을 털어달아난것을 이회사 경리과장 김범윤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聯】

美軍 헬機추락 1명부상 3명無事

1일낮12시께 주한 미8군 소속 UH1 헬리콥터1대가 坡州北방25㎞지점에서 추락했다.

미8군 후송병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 헬기에는 4명이 타고 있었으나 1명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뿐 나머지 3명은 무사하다고 밝혔다.

미군당국은 헬기의 추락사고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反政府시위 선동 延大生 5명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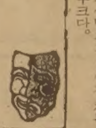
서울 西大門경찰서는 1일 延世大생 趙成民군(23·經濟科4년)등 5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24일 하오 延世大도서관앞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反則 선생님」

올빼미課外 들통 쇠고랑찬 S씨

「찌든學校」재건에 동료는 땀흘리는데…



서울P여고 미술교사 S씨(43). 16년째 교단에 서온 중견교사로 몇차례 개인전도 연 서양화가다. 명예와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예술가이며 교직자인 S씨가 지금 파렴치범들과 섞여 냄새나는 유치장에 갇혀있다.

죄명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심빌딩에 개인화실을 차려놓고 현직교사로서는 해선안될 미술과외지도를 해오다 적발됐다.

성직(聖職)으로 불리는 「가르치는 행위」가 학교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S씨가 치른 댓가는 너무크다.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고 동료교직자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찍혔으며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가됐다. 너무 가혹한 징벌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하지만, S씨가 월80~90만원의 「과외수입」을 얻기위해 올빼미처럼 숨어해온 「가르치는행위」를 간단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

모두가 지켜야할 법률을 위반했대서가 아니다.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할 보이지 않는 룰(法則)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간다. 이 「약속」을 어겼을때 질서가 무너지고 전체의 和合이 깨진다. 그래서 룰을 잘 지키는 행위는 「신사도」로서 찬사를 받게 마련이다.

「과열과외」로 찌들대로찌든 학교교육을 바른모습으로 되돌려야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전체의 「합의」였다.

입시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고싶고 과외수입으로 박봉에서 헤어나고싶지만 서로 삼가자는 것은 이미 「강제」가 아니다. 교직자나 학부모나 학생이 모두 인정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전체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S씨는 이 「약속」을 저버리고 부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빌어 개인화실로 위장한 비밀 과외교습소를 차렸다. 단속을 피하기위해 미술과는 무관한 회사원인 처남의 주민등록표와 도장을빌어 「과외교습자신고」도 내는 요령도 부렸다.

그러나 S씨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할 입장에서 反則을 한것이다. 레프리의 반칙은 선수의 챠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심각성이 있는것.

그렇다고 그의 인간 모두를 탓할 수는없다.

그의 머릿속에는 살림살이에 지친 아내와 아이들, 중풍으로 입원해있는 노모의 모습이 떠나지않을지모른다. 밀린 입원비에도 생각이 미쳤을것이다. 시들어가는 창작의욕이 못내 안타까와 더 늦기전에 교직을 떠날려했었다는 S씨. 그는 지금 후회하고있다.

그러나 때를 놓쳤다. 反則이없는 사회는 결국 개인개인의 양보가 모여 가능한것임을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 【姜秉泰기자】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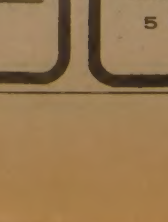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64 K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팀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날이 갈수록 남성의 자리를 잠식해오는 「영·우먼·파워」. 특별히 어느 과가 男女학생의 인기과라는 구분은 없어진지 오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全大學의 女性化시대가 오지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적잖다.

女大生全盛시대?

여학생이 더 많은 男子大學 등장

서울의 9개大學 53개科가 女性優勢… 최고12對1까지

대학캠퍼스에 영·우먼·파워가 물결치고 있다. 서울의 종합대학가운데 9개대학교의 올해 신입생중 여학생이 남학생 수보다 많은 학과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의 수석입학, 졸업생 가운데서도 여학생이 많이 끼어 있어 영·우먼·파워가 대단함을 실감케한다. 명문 延世大의 올 입학생의 경우 문과대학의 10개학과중 6개학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며 東國大나 弘益大, 外大의 사범대학 대부분의 학과에서도 여학생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여학생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대학의 학과는 檀國大 특수교육과의 45명. 과전체 학생수 52명 가운데 남학생은 7명 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6배에 이른다. 46년 전문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시작된 이땅의 남녀공학의 「紅一點시대」는 이제 과거의 사실화했고 「黑一點의 시대」를 예고하는 학과까지 나오게 된것이다.

□黑一點 멀잖아

延世大 1학년 문과대학 10개학과가운데 중문과를 제외한 어문학계열의 4개과 전부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다. 국문과가 여학생 45명에 남학생이 33명, 영문과는 여학생이 1백2명에 남학생 54명, 독문과는 여학생 35명에 남학생 30명, 불문과가 여학생 55명에 남학생이 10명이다.

남녀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불문과의 5·5대1로 나타났는데 어문학계열 말고도 사학과(여43·남35)와 도서관학과(여34·남18)등이 여학생이 우세한 학과다.

문과대 10개학과중 6개학과를 여학생이 숫자상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과는 지난해까지만도 남학생이 더 많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수가 남학생수를 앞질렀다.

사회과학대학의 신방과도 여학생이 42명, 남학생 36명으로 여학생수가 더 많다.

師大의 교육학과는 남녀모두 39명으로 타이.

延大 문과대 거의가 女學生
外大등 사대도 男學生 적어

음악대학은 延世大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미 여학생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지 오래지만, 延世大의 경우 영·우먼·파워가 압도적이다.

여·남숫자를 대비해보면 종교음악과가 18대8, 성악과23대16, 기악과 63대15, 작곡과 33대6이다.

成均館大 문과대학에선 독문과가 여27·남25, 도서관학과가 여46·남19명인데 成大야간부로 넘어가면 4개과의 어문계열 모두가 여학생 일색.

영문과 27대12, 불문과 34대5, 중문과 24대15, 독문과 23대16이다. 문과대학 어문학계열은 「야간 강의실」에서도 영·우먼·파워의 주도아래 놓인게 입증된 셈이기도 한것이다.

外大의 경우는 師大 4개학과를 몽땅. 弘益大의 경우도 師大 5개학과를 모조리 여학생이 숫자로 남학생을 앞질러버렸다. 東國大는 師大7개과중 4개과를, 檀國大는 師大 6개과중 절반인 3개과를, 慶熙大는 師大2개과중 외국어 교육과1개과를 여학생이 숫자상 압도하고있다.

中大의 경우도 5개학과에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을 압도하고있다. 특히 예술대학의 4개 학과에서 여학생이 우세하며 무용과의 경우는 여자가 36명인데 비해 남학생은 3명밖에 안돼 92%가 여학생인 셈이다.

단과대학	학과	女	男
<延世大>			
문과대	국어국문	45	93
	영어영문	102	54
	독어독문	35	30
	불어불문	55	10
	사학	43	35
	도서관	34	18
사회과학대	신방	42	36
사범대	교육	39	39
<成均館大>			
사범대	수학교육	34	31
	역사교육	37	15
	미술교육	47	5
야간부	영문	27	12
	불문	34	5
	중문	24	15
	독문	23	16
문과대	독문	27	25
	도서관	46	19
<外國語大>			
동양어대	터키어	14	12
사범대	영어교육	32	20
	불어교육	42	10
	독어교육	41	11
	한국어교육	43	9
<弘益大>			
사범대	수학교육	31	21
	국어교육	37	15
	외국어교육	36	16
	역사교육	42	10
	교육학	36	16
<東國大>			
사범대	국어교육	33	19
	국사교육	37	28
	교육학	28	24
	지리교육	37	15
문과대	국민윤리	32	20
	연극영화	27	12
야간부	영문	36	14
<建國大>			
문과대	지리학	33	19
사범대	외국어교육	30	21
야간부	독문	34	15
	영문	24	24
<檀國大>			
사범대	한문교육	40	12
	특수교육	45	7
	과학교육	41	37
야간부	영문	36	16
	일문	34	18
<慶熙大>			
문과대	국민윤리	31	21
	사학	26	26
사범대	지리	29	23
	외국어교육	35	30
산업대	요업공예	27	12
<中央大>			
예술대	연극영화	27	25
	음악	77	27
	공예	35	30
	무용	36	3
야간강좌	영문	33	16

□男女共學의 長短點

延世大의 문과대학은 다른 남녀공학 대학교의 문과대학보다 전통적으로 여학생수가 많았다. 남녀평등내지 女權의 중요성을 가진 서양의 선교사가 개교를 한데다 해방후 가장 먼저 여학생에게 입학문호를 열고 입학후에도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때문이다.

延世大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입학한 시기는 47년 신학기다. 46년에 교육령이 개정돼 延禧專門이 延禧大로 승격되면서 당시 白樂濬총장이 새학기부터 여학생을 뽑는다는 남녀공학을 발표했는데 47년에 입학한 여학생은 20명이었다.

전체 학생수가 8백명 남짓하면 시기라 20명의 여학생들 속에 섞이면 눈에도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20명의 여학생가운데 3명을 제외한 17명 모두가 문과대학생이었으니까 그 시점부터 延世大 문과대학은 여학생이 많았다.

20명가운데 51년도 졸업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닌 여학생은 10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金惠宜씨 (51년 文科大史學科)로, 남편이 된 변호사 李炳勇씨 (51년 政外科)와 동기이기도.

「禁女의 집」이던 延大에 여학생이 들어오자 白총장은 남학생들에게 젠틀맨 십을 발휘할때라고 가르치면서 당장 화장실 사용을 변경시켰다.

◇강의시간 틈틈이 校庭에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女大生들.

본관의 교직원용 화장실을 여학생이 쓰도록하고 남학생은 새 건물이 완성될때까지 야외에 임시로 만든 변소를 쓰게 했다.

여학생 휴게실도 교직원방 옆에 따로 마련해줬다.

지금의 여학생들은 원체 숫자가 많아서 강의실 아무 자리에나 앉아 강의를 듣지만 남녀공학 초기의 사정은 아주 달랐다. 강의실 앞줄의 양쪽구석에 자리를 차지하면 그 주위 책상엔 남학생이 감히 접근해 앉지 못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강자로서 약자인 여학생을 감싸주는게 상례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 등교 코스로, 서대문이나 아현동 전차정류장에서 내려 북아현동→梨大앞을 걸어서 갔다. 지금과는 달리 梨大음대와 문과대 사잇길을 관통하는 도로길이 나 있었는데 남녀공학후 延大에 들어간 여학생들도 물론 이 길로 다녔다.

首席 입학·졸업도 女性 우세
男性보다 勤勉… 악착스럽고

그때나 지금이나 좀 짓궂은 여학생이 있게 마련이었던지, 아니면 남녀공학을 부도덕한것으로 여겼던 때문인지 등교길에서 梨大生가운데 延大여학생에게 시비를 걸어온적이 가끔씩 있었다.

『야 너희들 기생이냐. 옆에 女子大學 놔두고 왜 延大를 들어가. 사내가 그렇게 좋으냐』는것. 어때서 이웃 梨大生과의 언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당시 延大학생신문에서는『남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온 동기가 뭐냐』며 여학생을 낯설게 보아 비정하기 이를데 없는 공격을 한적도 있었다.

그럴때면 『엉뚱한 추측은 말라. 치마를 둘렀다고 얕잡아보는 모양인데 일류 대학생이 학문적으로 겨뤄보려고 들어온거다. 색안경 낀 눈으로 보지말란』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지금 이런 시비나 대학신문기사가 있다면 웃음거리밖에 안될 일이지만 불과 36년전의 일이었으니 그리 먼 옛날 얘기는 아니다.

이즈음 대학생들의 어머니세대가 적은 일로 지금은 그 딸들이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이 많던 文科大와 師大에서 숫자로도 남학생을 앞서가고 있는것이다.

올해 延大수석합격자는 서울여고를 나온 金潤美양 (18·인문계경영학과)으로 487.5점 만점에 470.7점을 받았다. 또 西江大수석합격자도 여학생인 郭明淑양 (18·영문과)이었고 外大수석합격도 여학생인 宋永美양 (18·영어과)이며, 가톨릭의대도 여학생 李貞姬양 (18·의예과)이 수석으로 합격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전체 수석졸업자는 80·81·82년 연3년에 걸쳐 여학생이다. 金熙珍양(80년·의학과졸), 鄭賢珠양(81년·치대치의학과졸), 徐庚喜양 (82년·영문과졸) 등이 그들.

量産되는 고급 여성인력 수용태세가 문제
큰힘들여 養成해 놓고 死藏시킬까 憂慮돼

이처럼 여성 고급인력이 대거 배출되고 있는 캠퍼스의 현실과는 달리 이들을 받아들여야하는 사회적 수용능력 등 문젯점도 없는것은 아니다.

延大 朴興壽교수 (新放科)는 한국의 직업구조상 고급 여성인력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자칫하면 고급인력을 막대한 경제부담을 해가면서 양성하고도 이들을 사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다.

한편 졸업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학과와 갖는 유대관계에 의해 확장되게 마련인 科勢에 여학생이 남학생만큼 기여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내다 그냥 결혼해 버려 학문과의 관계가 끊길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이 많은 학과의 면학분위기는 진지하고 효과적이라는게 교수들의 평가다. 여학생이 많아 남학생들이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한다.

延大 申東昊군 (19·사학과 1년)은 여학생이 학과공부에 악착스럽고 보다 충실해 남학생들이 오히려 뒤지지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공부하는 자세에 촉진제가 된다고 말한다. 또 여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별다른 불편이나 제약은 느끼지 않는다고 하며, 여자가 있다고 해서 신경이 쓰일 나이는 지난 것 같다고. 그러나 아무래도 여자들을 앞에서 자기의 인상을 심어주고 싶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때론 교수로부터 숙제같은 것을 내 만히 했을때 『여학생들은 잘 하는데 남자들은 어렷것 안해와도 잘 할 자신이 있다는거냐』하는 꾸중도 듣는데 결론적으로 여학생이 많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다른것으론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

金泳蓓양 (19·新放科)은 『여학생수가 많으니까 학교생활에 여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돼 좋다』면서 분위기도 여학생이 적은 학과보다 화기애애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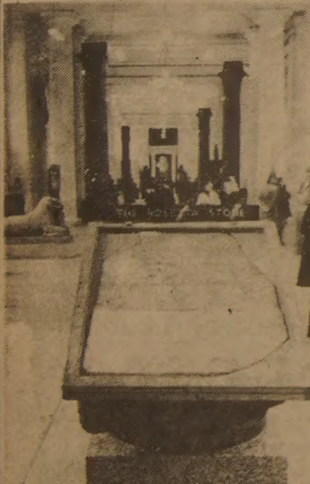
그러나 불만도 없지않다. 『다른 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끔찍이 위해주는데 여학생수가 많다보니 그렇지 못해 서운』하고 또 『교수가 남학생위주로 생각하는것 같아 섭섭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라면 모를까 남학생이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느냐』 등의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다고 한다.

한 여학생은 응시할때까지 여자수가 남자수보다 많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면서 『여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실망했다』고 고백했다.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科의 勢라는 면에서도 다소 저하된 느낌이 든다는 얘기다. 〈?〉

세계의 博物館

英國국민의 학습장
大英 박물관

全세계 古代文明을 모두망라
無料입장…관람객 年 3백만명



◇古代 이집트 文字解讀의 열쇠가된로세타·스턴. 1798년 6월 나폴레옹원정군이 발견한 이돌은 세계적인 보물로서 대영박물관의 자랑거리의하나다.

런던의 옥스퍼드스트리트는 은행과 商社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거리의 북쪽에 그레이트·러셀이라 이름이 붙은 길이 있다. 이름만 요란하지 차 두대가 비켜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다.

이거리가 매일아침 10시가까이되면 인종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바로 이거리에 「영국의 얼굴」이란 大英박물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각지에서모여든 사람들은 철책너머에 우뚝솟은 44개의 이오니아式 기둥을 바라보며 「장대한 인류문명의 殿堂」인박물관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전세계를 주름잡았던 大英帝國의 힘의 상징인 大英박물관이 탄생한것은 1753년이다. 한스·슬론卿이 수집한 寫本, 繪畫, 화폐, 각종문화재등 5만여점을 정부가 사들인데서 비롯됐다. 이를 정리해 일반공개를 시작한것은 1759년. 19세기들어 여기에 각종 이집트유물이 곁들여지고 1816년「에르긴大理石」이라 불리는 그리스의 각종 대리석像이 보태져 박물관의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구라파의 유명박물관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영박물관의 수많은 소장품에는힘을 바탕으로했던 제국주의의 그늘이 드리워져있다.

대영박물관이 소장품중 제일 자랑하는 로세타·스톤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반출한 것을 영국이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이겨 빼앗은 것이다. 「에르긴大理石像」도 1799년부터 터키공사를 지낸 토머스·브르즈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빼내온 것이다. 敎煌의 秘寶도 스타인卿이 1907년 중앙아시아탐사중에 발견, 가져갔다.

대영박물관이 현재의 건물을 마련한 것은 1848년이다. 로버트·스머크가 그리스의 고전건축을 참고해 마련한 설계에 따라 건립했다. 여기에 대영박물관이 자랑하는 자료등의 열람실이 곁들여진 것이 1857년이다.

박물관은 크게 西洋유물, 미술, 그리스, 로마, 영국중세, 陶器民俗, 金石, 東洋部등으로 나누어져있다. 지금은 독립됐지만 大英도서관이 같이 있는것이 강점이다.

소장유물은 전세계 고대문명이 모두 망라돼있다. 로마, 그리스, 이집트는 물론 아시아·오리엔트문명, 인도, 네팔문명과 한국 일본의 유물까지 포함돼 있다.

이때문에 대영박물관의 소장품을 전부 본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입장은 무료다. 1974년 꼭한번 경제난으로 입장료를 받은 일이 있으나 곧 없어졌다. 무료관람이지만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각종편의가 제공된다. 강좌는 물론 스케치를 하는경우 의자까지 빌려준다.

이런점에서 대영박물관은 「영국국민의학습장」으로 불리고있다. 귀중한 이집트미이라가 전시된 방바닥에서 국민학교아동들이 뒹굴고 도시락을 까먹는풍경이 심심찮게 눈에띈다.

한국사람이 대영박물관을 찾을 때 가장 관심을갖는 한국실은 2층에있다.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고있다. 때때로 우리나라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거대한 佛畵가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참 벽에 걸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것도 자주바꾸어 걸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볼수 있다.

한국실과 함께 눈여겨찾아보아야 할 곳이 박물관 1층 오른쪽에 있는 그렌빌과 킹스라이브러리이다. 여기에는 세익스피어의 初版本, 바이런, 키츠의 筆跡, 마그나·카르타原本등 세계적인 희귀본과 역사적인 古文書, 우표등이 진열돼있다. 박물관중앙에 있는 圓形열람실은 1백50만권에 가까운 장서를 갖고 있는데 칼·마르크스, 버나드·쇼등 이를 이용한 문인, 학자수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매년 대영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3백만명이 넘는다. 특별한 경축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문을 열기때문에 잠시 런던을 들르는 사람도 별 불편없이 관람할수 있다. 【李炳日기자】

『그이의 짓이 아니에요…내가 자제력을 잃고 그를 깔아뭉갰죠!』
"It wasn't his doing…I lost control and raped him!"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업무국) (416)533·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한국의 妓生

薦枕(천침)망신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생은 한갓 官物이었다。수령의 명령에 따라 정을 주고 단념해야 하는 아픔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기릴만한 節妓가 없지는 않았지만 절개는 고통을 더할 뿐이었다。그러나 아무리 밥그릇같다 하더라도 아무나 팽개쳐 버릴수 있는、누가 생채기를 내도 탓하지 않는 그런것은 아니었다。그들에게도 엄격한 保護律이 있었다。고도로 훈련된 藝人이었기 때문에 잘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이를테면 그들을 매질하거나 박대할 수 없었다。매질한 죄로 파면된 관리도 있다。그러나 보호법령은 조선말기까지 존재하였지만 차츰 준용되지 않았다。보호벽이 엷어진 것이다。

侍寢명령 받으면 아무리 싫더라도 손님 모셔야하고
일단 房으로 들어갔다 許諾받고 나오면 처벌안받아

♥합법적 수청거절

시침 명령을 받은 기생은 반드시 시침해야 한다。수령이 직접 혹은 예방비장이 시침 당번을 정하는데、대개는 손님의 지명을 대행할 뿐이다。이러한 시침관습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요정에 온 손님이 아가씨에게 군침을 흘리는 눈치면 마담은 호스티스더러 잠자리를 모시라 지시한다。멤버나 웨이터가 단골손님과 동침하라 눈짓하면 설사 생리중일지라도 가자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만일 이를 어기면 해고되거나 흠씬 매를 맞는다 한다。

옛 기생들은 수청을 거절한 죄로 매를 맞기 예사였다。成俔은<용재총화>에다 수원기생이 손님을 거절했다는 죄로 볼기를 맞고「어우동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여 죄를 얻었고 나는 음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얻었으니 법이 어찌 이처럼 공정하지 못한가」고 하소연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모두 옳은 말이라 하였다。

설사 매를 맞지 않더라도 갖은 박해를 당하게 되므로 일단 손님 방에 갔다。손님 방에 가서 회피하는 것이다。손님에 따라 양해를 얻는 수도 있고、또 어떤 손님은 소위「바람맞은 사실」을 체면 탓에 감추기 때문이다。그런 실례들이 있다。

♥냉가슴앓는 사내들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온 여행의 견문을 적은<일동장유가>(金仁謙著)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이 墨州에 머물렀는데 譯官 李彦璸이 늘 고운 차모를 얻어 달라 하므로 김인겸이 귀란이란 차모를 주선하여 들여보냈다。

차모나 기생이 핑계를 대어 빠소녀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김인겸은 인물이 반반한 차모를 골라 들여보내면서『무슨 핑계를 대든 절대 놓아 주지 말라』고 이언전에게 신신 당부하였다。

그런데 차모 귀란은 자리에 누워 훌쩍거리면서『아비의 제사 오늘이니 잠깐 다녀와서 모시면 아니 되겠읍니까』하였다。이언전은 선선히 응낙했다。그러나 한번 간 차모는 날새도록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결국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운 꼴이었다。

이튿날 일행이 永同에 이르렀을 때였다。이언전은 어젯밤 차모에게 속은 화가 덜 풀려 툴툴거리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차모 섬월이더러 수청하라 하였다。그런데 섬월 역시 자리에 들기 바쁘게 어머니 大喪날이라고 애걸하는 바람에 잠시 다녀오라고 한것이 또 속은 꼴이 되어 뭇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귀란이나 섬월이가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속은 이언전을 비웃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 꾀를 내어 시침을 폐하는 예가 많았던 것같고、또 妓夫나 情人을 갖고 있는 기생의 그러한 간교가 간교로 이해되지 않고 節行으로 가상하게 여겨졌던것 같다。

李叔度가 속은 일을 보더라도 그렇다。

李陸이 충청도를 안찰할 적에 종제인 숙도가 軍資監正으로 호남에 말을 점고하러 왔다가 공주에서 만났다。공주에는 燕燕이란 기생이 제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육은 그녀에게 숙도의 잠자리 시중을 들게 했다。

숙도가 먼저 자리에 눕고 연연에게 옷벗기를 재촉하자 연연도 옷을 벗고 누워 막 정을 나누려하는 찰나였다。그때 갑자기 연연이 몸을 움츠리며『내일 비웃음 당할 생각을 하니 두렵습니다』했다。숙도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본래 젊은 기생에게 손님을 모시게 해야 마땅한 일인데 사또께서 손님을 망신시키려고 일부러 저같이 늙은 기생더러 모시라 하였으니 오늘 동침하시면 저야 영광이지만 손님께서는 내일 만당의 조롱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연연의 대답이었다。

숙도는 그 기생을 내보내고 말았다。그리고는 冠帶를 차려 입고 있다가 첫 닭이 울자、이육의 처소로 갔다。이육을 깨워 불을 밝히고 함께 술을 나누었다。그런데 술상을 들고 온 기생이 젊고 아름다왔다。이름을 물었다。行首(우두머리)기생이『어제 모시고 잤던 연연이옵니다』하였다。숙도는『아니다』고 우기며 연연에게『네가 정말 그 기생이었더냐』고 물었다。연연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그래도 숙도는 믿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이육이 연유를 물었다。그리고 숙도가 연연에게 속은 사실을 밝혀냈다。숙도는 늘 권모와 지략을 자랑하여 남을 속일지언정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뽐내고 있었는데 한갓 기생에게 완전히 당하여 조롱을 당했다。

아마 숙도는 몹시 화가 치밀었겠지만 기생을 벌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일단 기생이 방안에 들면 수청한 것으로 간주되는데다가 수청을 거부했다 하여 매질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수청거절한 죄는 오직 수령만이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수령이 죄를 묻더라도 기생은 다른 죄인처럼 다루지 않았다。왜냐하면 기생에게 保護律이 두꺼웠기 때문이다。

배정받은 妓生에속아 情못풀고 조롱받은 사내 수두룩
관계 거절했다고 罰주었다가 官職빼기고 귀양 가기도

기생을 매질했다가 罷職된 관리가 있다。議政府 舍人인 郭存中이 讚善 政郞 李宗奎、柳孟聞、佐郞 金孝貞、兪上智、柳九思등과 더불어 舍人司(舍人들이 모여있는 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기생을 불렀다。

그런데 기생 爲君來가 늦게 왔다 하여 곽존중과 이종규가 노하여 위군래에게 매질을 했다。위군래는 이 사실을 사헌부에 고발했고、사헌부가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자 태종은 곽존중과 이종규를 면직시켰다。太宗 17년 7월의 일이었다。

그런가하면 羅州判官이었던 崔道之는 官妓를 致死케 한 죄로 파직되었다。萬頃縣令 尹江이가 볼일이 있어 나주에 왔을 때 관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그래서 윤강이 기생 花見羞에게 매질을 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花見羞가 매를 맞은지 3일만에 죽었다。花見羞의 집에서 고소를 했고 윤강은 이로 인해 파직되고 말았다。이도 태종때(11年 1411)있었던 사건이다。<朝鮮王朝實錄>

♥死文化한 保護律

그런데 이보다 약 50년 뒤인 睿宗元年에 일어난 사건은 당시 고위관리 여럿이 관련되어 당시 지배계급과·기생과의 풍속을 보여 주고 있다。

1469年7월에 平壤府의 官婢인 大非가 사헌부까지 찾아와 고발했는데 고발내용은 이러했다。

府尹 李德良의 從者인 朴從直이가 기생 望玉京을 관계하고 또 기생 笑西施를 관계하려 했다。소서시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은 박종직이 이덕량에게 고자질을 하고、이덕량이 소서시와 소서시의 어머니인 內隱伊를 곤장 쳐서 죽게 되었다。이런 사실을 대비가 관찰사에게 고소하려 했으나 후환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써주지 않았고、또 관찰사인 魚世謙이 기생 舍露花와 관계하고 都事 任孟智는 기생 楚腰經을 관계하여 평양부에 내당이나 머물러 두고 있었으므로 송장을 수리할 리 없었다。

더우기 이덕량은 소서시의 형제두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내은이가 매끝에 죽자 부의를 보내어 타이르고 변사로 가장한 뒤 혹시나 고소하여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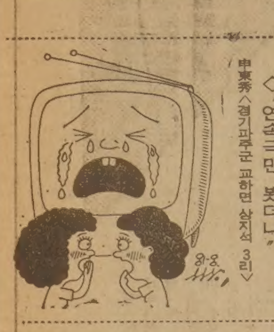
왕은 고소장을 접한 뒤 院相과 承旨더러 조사케 하면서 대비를 가상히 여겨 쌀과 옷감등을 하사했다。

대비는 또 황해도 도사 鄭孝終과 찰방 辛屆聘이 중국 사신을 맞으러 평양에 갔다가 술 마시고 기생을 간음한 사실을 아뢰었다。

사헌부나 의금부에서 조사한 결과 기생 모녀를 치사케 한 일、관찰사 어세겸이 기생과 놀아난 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이들은 官妓同宿禁令을 어긴데다가 國喪(世祖)중에 기생을 간음하여 죄가 十惡에 해당되고、기생을 致死시켰으므로 마땅히 무거운 죄로 다스려야 하지만 더우기 영의정이하 모든 정승이 엄벌을 주장하였음에도 心弱한 예종은 대부분 불문에 붙이고 이덕량과 박종직만 처벌하였다。그러나 이덕량이 先王(세조)을 오래 시종한 공신이라 하여 직첩만 거두고、박종직은 곤장 1백에 가족을 邊境으로 이사시켰다。그리고 내은이 가족에게는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이 사건은 예종때에만 있었던 특례가 아니고 훗날에도 자주 일어난다。그러나 예종이 미온적으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점점 기생에 대한 관리의 횡포가 심해져 기생의 保護律이 얇아지게 됐다。변사또가 기생 아닌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수청을 거절하자 매질하여 옥에 가두었듯이—。

<계속>



◇"연속극만 봤더니"

申東秀<경기파주군 교하면 삼지석 3리>

새 移民政策 실시 20년 <2>

해외移民 실태

永住權받으면 美政府보호와 支援받을 權利
州當局에 등록하면 "돈 받으며 技術배운다"

企業移民 1차로 家內工業、2차 中小企業
紡織、家具修理、가방·漁具 제조業등 유망

◇청과상은 한국동포들이 특히 많이 종사하는 업종。교포 상인들이 짐을 풀고 있다。

서독 파견 간호원으로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75년6월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현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자원씨(여·33)는『커다란 차에 야채를 잔뜩 싣고 눈에 푹푹 빠지는 길을 달리며、장사를 하던 때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귀국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면서『그러나 그것이 토대가 돼서 현재는 음식점 주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다。

서울에서 TV탤런트와 방송작가생활을 하다가 현재 뉴욕에 정착、안락한 생활을 하고있는 정세진씨는『노동생활을 하면서 당한 수모도 대단했지만 25센트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워야했을 때의 가난은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초창기의 이민생활을 회고한다。

그는 그밖에도 공장 공원、상점 점원등의 생활을 거치다가 이민 4년만에야 안정을 찾게 됐다고 명랑이고있다。

어쨌든 이민생활의 고통을 전해오는 해외동포는 부지기수다。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의 끈질긴 의지를 보인끝에 본격적인 미국이민이 개시된지 20년째인 현재、한국동포가 정착하고있는 각국마다에서는 각종 성공사례가 심심치않게 들려오고있다。

美移民生活 요령

◇金李滿씨

지난 15년간 미국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한국인의移民생활을연구해온 金李滿씨(43·美洲生活연구원장)는『미국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성공하려면 그나라 사정에 밝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金씨는『일단 미국땅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주권을 얻는 순간부터 미국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따라서 뚜렷한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경우、州정부 당국에 등록만 하면 즉시『돈을 받으며 기술을 배울수 있는』기관에서 교육받을 수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업기회도 얻을 수있다는 것이다。

金씨는 또『이민자가 아무리 현금이 많다 해도 적어나 자가용、가구 등을 살때는 절반 또는 3분의1 정도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용이 있는 친지의 보증을 받아 외상거래를 해야 돈도 아끼고 신용거래의 길도 틀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집、자동차、일상용품 등이 모두 정찰제이지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둘 일이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다가 6개월내에 고장이 나면 다시 새차로 교환받을수있는것도 미국 특유의 서비스제도。법률이라면 절대 준수하는 미국사회에서는 또 피고용자가 州에서 책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을 경우、뒤늦게라도 고용자측에 못받은 액수를 청구하면 전액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남녀평등사상이 투철한 미국사회에서는 남녀의 임금차이가 없을뿐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손찌검이라도 했을때는 이웃의 고발로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미국사회를 지켜본 여러사람의 귀뜸이다。

이밖에 거리를 다닐때는 가급적이면 크레디트카드를 소지하되 현찰은 1달러짜리를 몇장 준비했다가 강도의 구걸할때 기분좋게 한 장씩 건네주는 방법을 쓰면 강도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고。

어쨌든 미국사회는 복잡하고 모험이 많은 사회이지만 생활요령만 제대로 터득하면『살아볼만한 안전하고 즐거운 사회』라는것이 재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展望 밝은 企業移民

南美를 순방중이던 千命基 保社部 장관이『移民의 아르헨티나에 기업이민을 보내기로상대국과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企業移民이란 새로운 형태의 이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企業移民은 기업이민의 한 종류로 농업이민、어업이민에 이어 등장한 새 이민형태。

현재 정부 당국에서 어떤 내용의 업종을 어떻게 보낸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민 추진의 선두주자로 나서서 상대국과 끊임없는 접촉을 벌여 왔다는「범흥공사」측에 따르면 기업이민은 원칙상 1차에는 미싱 몇대면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초보적인 가내공업을 진흥시킬 공산이 크다고한다。

이때에는 기술자와 시설자본을 함께 내보내되 자본은 국내의 원자재로 배재함으로써 원자재 수출의 성과를 함께 거둘수 있다는것。

이렇게 해서 1차·가내공업이 현지에서 안정되면 이어 2차로 중소기업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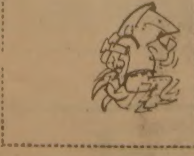
이때 알맞은 업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안경、플래스틱제품 제조업、구리철사 제조업등。이같은 업종은 간단한 사출기나 소규모 기계만으로도 제조할수 있어 자본규모도 5만~10만달러면 충분하고 실패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

또 마진이 우리나라의 2배를 넘어 기업성이 크다는 것이 현지를 다녀온 관계자의 귀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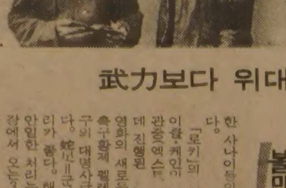
이러한 기업이민은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써 현지 고용증대를 꾀할수 있고 현지의 경제개발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어 상대국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범흥공사」관계자는 南美지역에서 기업이민으로 유망한 업종으로 방직업、漁具제조업、가구수리업、가방제조업、원단가공업 등을 꼽으면서『법적 지원과 세금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윤가율좀 투자 희망자들을 모아 현지시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白承愉기자>



승리의 탈출



총칼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뜨겁게 뭉쳐진 인간애의 승리야말로 무력의 승리보다 더 위대하다。영화 승리의 탈출(원제=Escape to Victory)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총소리가 들리지않는「무서운 전쟁」、인간애의 승리를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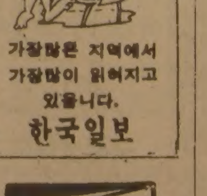
武力보다 위대한 人間愛의 승리

1943년 나치독일은 연합군포로 가운데 축구선수를 선발、독일국가대표팀과 경기를 갖게한다。장소는 파리。독일이 무력을 앞세운 축구에서도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심판의 편파、영양실조등 여러가지 악조건에서도 연합군팀은 정신력으로 경기를 이기고 열광하는 관중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노장 존·휴스턴감독(75)은 단조로운 줄거리에 훈훈한 인간애를 담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한마디로 불가능한 도박에 도전한 사나이들의 감동어린 스토리다。

볼만한 映画

「로키」의 실베스터·스텔런、마이클·케인의 기가통보이고 5만 관중엑스트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그경기가 압권으로 영화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한다。축구황제 펠레、보비·무어등 축구의 대명사급선수18명이 출연한다。군더더기 없는 화면처리가 좋다。해치대위 탈주장면의 안일한 처리는 옥의티。스카라극장에서 오는3일부터 상영한다。〔基〕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

衝擊사진 女선수들 포즈 是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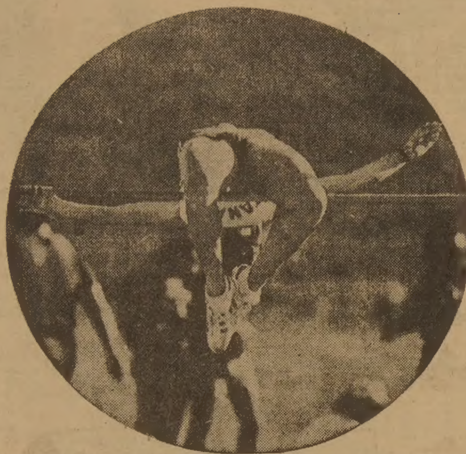
일본의 스포츠사진 전문가가 여자스포츠 선수들의 동작가운데「女體의 美」만을 강조한 사진집을 발간, 일본체조 협회등 관계자들의 격분을 사는등 화제를 뿌리고 있다.「여자선수 스포츠 激撮術」이란 표제의 이책은 신체조 육상、수영、배구、농구등 여자선수들의 격한 순간순간을 필름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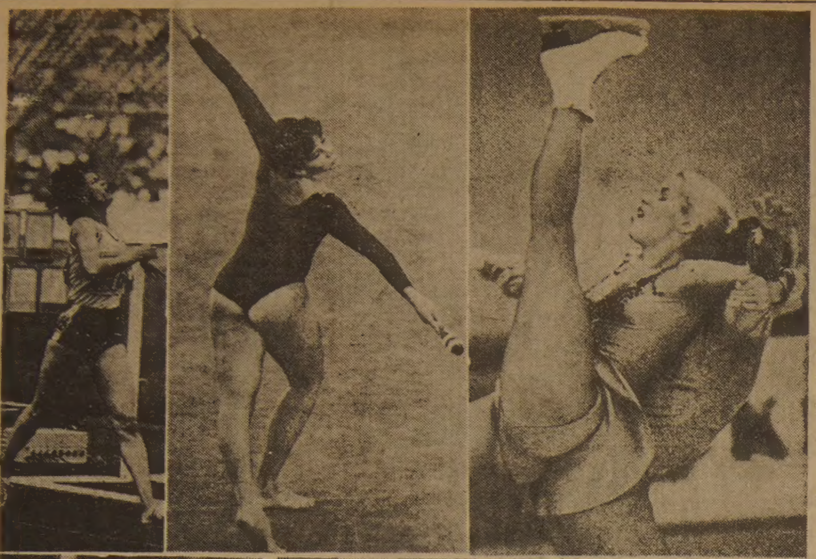
★관련 畵報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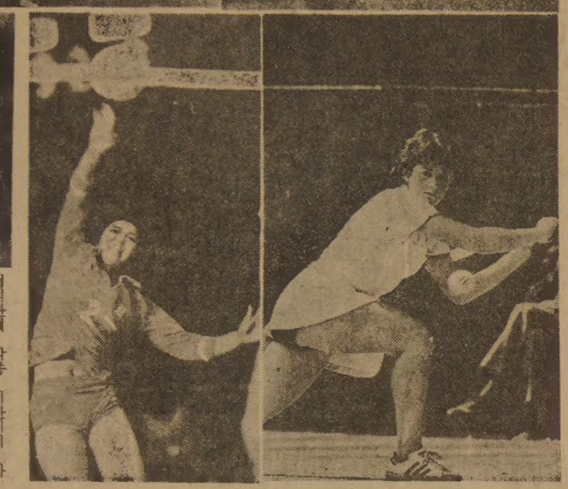
日 스포츠寫眞전문가 女體의美만 담은「激撮術」책 내 말썽

저자는 20년이상 스포츠사진만을 촬영해온 기시모도씨(岸本健·44)。일본 스포츠프레스협회부회장이며 일본 스포츠예술협회이사이기도한 기시모도씨는『스포츠 사진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책으로 꾸몄다. 여자선수들을 소재로 한것은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해가 빠를것 같아서였다』고 저술동기를 설명했다. 기시모도씨의 이같은 외도(?)는 스포츠사진가로서의 그의 명예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었다.

기시모도씨는 일본체육협회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東京 시부야(澁谷)의 기시(岸)기념체육관 지하층에 지난 65년「포토·기시모도」라는 사무실을 열고 지금까지 체육협회관계 각종 기관지에 사진을 제공해왔다.







日체육계激憤 "스포츠의 이름 빈 煽情的인 商術에 불과"

岸本사진작가 "女선수들 섹스모드가 危險線 육박했기때문"

기시모도의 책이 출판되자 일본체조협회에서 지나치다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곤도(近藤)회장대리는『여자선수들의 사진을 순수하게 찍어주도록 요망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사진작가들에게 전달했다.

스즈끼(鈴木) 일본올림픽위원은『약동미가 때로는 선정적인 면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스포츠의 이름을 빈 상술에 불과하다. 재판을 발행치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포르노필름까지 공공연히 상영되는 일본이라도 스포츠의 이름을 빈 선정적인 사진에는 일본국민들도 저항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듯한 반응이다.

기시모도씨가 여자선수들의 격한 동작을 담은 책을 출판할수 있게된것은 스포츠선수들의 섹시모드자체가 위험선을 육박하고 있기때문. 관중을 의식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어쩔수 없는 추세이다. 여자테니스 선수의 핫팬츠에서 관중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엿볼수 있다. 육상에서의 마법의 옷이나 몸이 패인 수영복등은 경기력향상을 위해 개발된것. 80년 1월24일 미국의 에시포드는 마법의 옷을 입고 60야드에서 미국 신기록을 세웠다. 워낙 가볍고 얇아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 냈다.

체조 역시 뛰어난 연기를 위해 간편한 유니폼을 찾는다. 특히 신체조의 경우 율동미가 가장 중요하므로 매력넘치는 유니폼을 입고 있다. 끝없는 기록에의 도전과 미의 추구가 제2의 피부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별난취미 3.

壽石은 바로 내 分身이죠

朴基枃씨의 探石 여행12年…

12년간 거친 돌이 깔린 전국의 강변을 헤매며「一生一石」을 찾고 있는 愛石의 인생 朴基枃씨(51·관악구 상도1동 129의19)는 발바닥의 굳은 살 두께만큼 어렵게 얻은 壽石속에 묻혀 산다. 봉천동 고개가 숨 가빠 매연 버스의 잡음이 설틈 없는 차도 옆 25평짜리 국민주택 마루와 안방엔 朴씨가 주운 壽石이 3백여점―. 주인 朴씨를 위한 집인지 壽石을 진열하려고 세운 전시장인지 주객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朴基枃씨가 12년간 강가를 헤매며 주워 모은 수석들―집 안팎에 모두 5백여점이 있다. (圓內 사진은 朴씨)

열 댓평 남짓한 앞마당에 꾸민 화단에도 나무는 단 세그루지만 팔뚝 만큼씩한 수석 30여개가 서있다. 집안에 있는 수석은 대부분 자고 와단과 현관 입구 양쪽 벽에 늘어세운 수석들은 명치가 크다. 뒤곁에는 타면상자에 싸서 넣은 수석이 1백50여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朴基枃씨집엔 집 안팎으로 5백여개의 수석이 있는 셈이다.

山水景石、形象石、紋樣石、色彩石에 버구상 작품같은 곡선과 면으로 이뤄진 새로운 취향의 돌까지 그야말로 설내의 만물상을 펼쳐보이고 있다.

朴씨 말로는 12년간 모은 돌이라고 한다.

『70년도에 출판업을 하다 실패하고는 울화가 치밀어 집에 못 있겠더군요. 무작정 강변으로 달려 나갔읍니다.』

東國大국문학과를 다닌 문학인이 되려했던 얼도 었었던 朴씨가 경거도 여주군 강촌면강촌리 강가에서 마음을 달래며 소일하다 찾아 낸것은 용이 하늘을 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돌이었다.

집으로 돌고와 어모저모로 돌여다보고 쓰다듬으면서 애지중지했다.

그때부터 매일 혼자서 강변을 쏘 다녔다.

『돌을 알면서부터 마음 조급한걸 잊게 되더군요. 성격이 유연해졌어요. 자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사이에 돌을 줍는 묘미의 탐석경지를 헤만큼 터득했는가 봅니다.』

처음엔 어떤 물체의 모습을 닮은 形象石만을 찾았다. 큰 돌은 공공거리며 짊어지고 와서 밤 새워 세재를 뿐 물로 닦아낸다음 생김새가 마음에 들때까지 이리저리 세워보고 눕혀보곤했다.

物形중심에서 석질과 색감위주로 취향이 바뀌는 새차례의 혼란을 겪어 그 이전에 주운 돌은 1천여점이나 남에게 줘버린 일도 있었다.

『미적 감각에 혼란이 와서 동양정서의 기원이 되고있다는 老子、莊子의 책을 읽고 현대미학도 알아야겠기에 예술론 시론등 많은 책을 읽어봤읍니다.』

인쇄소를 합작으로 차린 뒤에도 주말과 공휴일을 택해 朴씨는 새벽6시면 강변행 집을 챙긴다. 신정 연휴 3일간도 강에서 보낸 광증의 수석인이라니까 探石은 4계절 무휴다.

72년 금강 상류에서 갑자기 폭우를 만났다. 밀짚모에 허름한 차림새로 인적없는 곳을 헤매다보니 예외 없는 간첩으로 오인돼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었다.

그 이듬해 가을엔 충북 제천군 서창국교 정문 앞까지 3천원에 짐꾼을 시켜 큰 돌을 옮겨다 놓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다음 일요일에 내려가 보니 그 돌이 신축정문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박혀 있었다. 이것마저 기어이 찾아왔다는 욕심 많은 수석인이기도 하다.

事業에 실패하고 무작정 江에 나간게 계기

"物財 잊었지만 心財로 만족하고 삽니다"

하루에 보통 50~60리를 뒤진다. 물론 돌이 깔린 험한 강변이다. 발바닥이 돌처럼 굳어지고 다리 힘이 세졌다. 돌을 뒤집어 보고 박힌 돌은 파내 보는 동안 손도 저렸고 억세졌다. 이같은 探石의 과정에선 점심을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한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을 뒤져도 단 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탐석 가기 전날 밤엔 제의 잠을 못 잡니다. 물아의 경지에서 돌을 찾아 헤매는 기쁨을 맛게 되는 기대 때문이죠.』

그는 스스로 탐석 여행을 하지 않는 수석인은 수석인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정도로 탐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가 12년간 즐겨 다닌곳은 남한강상류·금강상류·낙동강상류이고 남해안일대의 섬여다.

『남한강 상류는 누구나 좋아하는 탐석지죠. 여기선 까만 돌(烏石)이 많고 초컬리트색이 나는 돌도 많아 색깔의 변화를 즐길수있어요.』

남한강상류 수몰지구 일대는 수석의 보고라고 한다.

금강상류에도 烏石이 나오지만 석질이 좀 약하다 한다. 우리 파편으로 돌을 금었을때 흔적이 나지 않아야 경도 5도이상의 좋은 석질로 인정받는다는것. 또 금강상류의 돌은 水磨상태가 매끄럽지 못해「젊은 돌」이라고도 부른다.

낙동강 상류의 돌은 청색계통이 많고 색의 변화가 다채롭다. 그러나 水磨상태가 좋지않아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이 적진다.

『돌은 대자연이 무념의 상황에서 창조한 예술이자 예술인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이 돌을 애무하며 손때를 묻혀 길을 들이면 愛石정신을 이해할수 있을것 같아요. 지금은 돌의 제 색을 보려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있읍니다만….』

형상이나 경관을 응축하고 있는 돌에서 縮景美를 즐기는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연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하고 사람 마음에 德性을 심어주는것이 돌인것같아 돌속에 묻혀 돌과 얘기하고 돌과 마음을 나눈다고 한다.

수석 취미 덕에 物財를 잃고 心財로 만족하고 산다는 朴씨의 또 다른 수확은 江村의 어부나 사공 치고 朴씨와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탐석을 갔을때 점심상을 차려 주고 강변 이쪽 저쪽을 태워주는 소박한 강촌 사람들과 12년간 가난한 마음이나마 더불고 지냈기때문이다.

탐석을 가는 날, 집안에 필요없는 옷가지를 싸들고 가 강촌의 친구 영감님들과 개구장이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朴씨로선 또하나의 즐거운 일이 된다고 한다.

朴씨는『지금까지 전시회를 가진 일이 없다』면서『내 조그만 집이 바로 수석전시장』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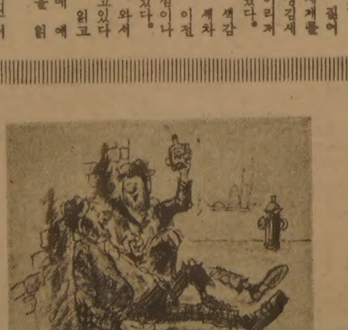
『수석은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이며 제2의 인생이나 다름 없다』는 朴씨는『수석이야말로 대자연을 응축한 대자연의 단면도』라고 수석에 찬론을 폈다.

미를 추구할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새로운 인생을 걷는 셈이라는 朴씨가 앞으로 꿈꾸는 것은『수석과 함께 살며 수석에 관한 책을 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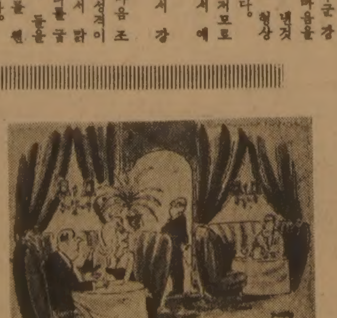
海外 걸작만화

◇금발의 미녀인지 뭔지 몰라도 내 마누라가 들어오기 전에 나가 달란 말이야.

◇세밀한 진찰끝에 당신 남편이 플래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걸 발견했어요.



◇자, 이제 술의 나라로 가세.



◇아, 저 남자요? 내 남편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일 거예요.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2. 入國및 세관통과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가 2곳으로 나뉘어져 입국수속을 밟게된다。이때 비시민권자는 시민권자보다 소요시간이 길다。일단, 입국창구에 가면 이민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미국 입국목적, 체재기간등을 물어본후 입국여부및 체류기간을 결정한다。

대부분은 주한미대사관에서 Visa를 받을때 적혀있는 체재기간이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미국입국시에 이민국 직원에 의해서 정식으로 그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얼마전 영주권자인 딸의초청으로 서울 미대사관에서받은 방문Visa로 미국에 도착한 할머니 한분이 공항에서 한국인통역을 대동한 이민국 직원의 질요한 질문에 「와서 좋으면 눌러앉겠다」고 한말을 그통역인이 그대로 전달, 방문으로와서 미국에눌러앉을계획을 가진 사람으로 단정한 이민국 직원은 그할머니를 공항 hotel에서 하룻밤을 새우게한후 다음날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일이있다。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대한 대답은 미대사관에서 했던 내용대로 행선지, 입국목적, 원하는 체재기간등을 침착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될것이다。

입국수속이 끝나면 세관을 통과하게되는데 기내에서 적었던 세관신고서를 접수한후 물건을 검사대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게된다。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y name is Young-Ja Park.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I'm here to visit my daughter.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One month.
Ok, I hope you'll enjoy your visit.
Thank you.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 영자입니다。
방문 목적은요?
제 딸을 방문하러 왔읍니다。
미국엔 얼마나 오래 머무실 예정이십니까?
한달정도입니다。
좋습니다。즐거운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음】daughter: 「도―러」 you'll: 「열」

3。공항에서

통관이 끝나면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짐이 많은 경우는 공항안의 Porter (짐꾼)에게 부탁하면 된다。이때 마중나온 사람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혼자서 hotel같은곳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공항내의 information (안내계) 에 문의 하여 목적지까지의 최상의 방법을 알아내는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앞에서 시중의 큰hotel까지 왕복하는 limousine (리무진 : 공항왕복전용버스) 을이용하는것이 차비가 적게 들지만, 가는곳이 그런 hotel에서부터 멀리 떨어진곳이면 아예 처음부터 cab (캐뱁 : 택시) 을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다。운전사에게 주는 tip은 보통 금액의 10~15%정도이고, 「잔돈은 가지시오」라고 할때는 Keep the change. 라고 하면된다。

또한 공항에서 전화연락을 할 일이 생겼을 때는 동전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편에게 요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형편이라면, 교환 0번을 돌린후 계속해서 원하는 번호를 돌리면 마지막에 교환양이 나와서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게된다。「상대방 요금부담으로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이라고하면 교환이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을 물은뒤 상대편에서 요금을 부담할것인지를 확인한후 통화를 시켜준다。

동전을 이용하여 장거리통화를하는경우, 투입한 금액이 틀리거나 시간이 초과할때마다 교환이 예를들어 30 cents, please. (30센트를 넣으십시오) 이와 같이 돈을 더 넣으라는 지시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하여 통화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Take me to 4550W. Wilson Ave. Please.
All right.
How long will it take?
Oh, about 40 minutes.
Here we are.
How much is the fare?
$8. 25.
Keep the change.
Thank you.
4550 웨스트윌슨까지 부탁합니다。
알겠읍니다。
얼마나 걸리죠?
약40분쯤 걸립니다。
다왔읍니다。
요금이 얼마죠?
8달라 25센트가 되겠읍니다。
잔돈은 넣어두시오。
감사합니다。
【발음】take me: 「테이크미」가아니고 【테익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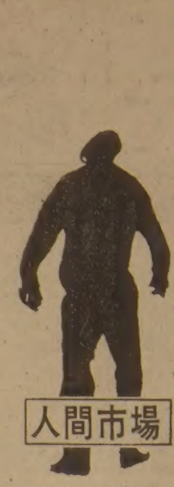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⑥⑧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지난 줄거리

은숙이가 먼저 현장에 뛰어들었으나 초조한 춘찬의 가슴은 숨길수가 없었다.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춘찬 일행은 행동개시를 했다. 그러나 권총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잡힌다. 은숙이는 발가벗겨져 희롱당했다. 춘찬은 겨우 기적적인 순간을 포착, 유괴범 일행을 잡았다. 박실장과 그의 부인이 꿈모한 사건임을 알고 분에 못이겨 실컷 두들겨 팬다. 김회장에게 악을 쓰고 나왔다.

모처럼 다혜와 나는 한가한 시간을 가졌다. 대낮부터 어울려 다니며 어떻게 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막상 갈곳도 마땅치 않았고 그렇다고 갈만한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신문을 모조리 사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다혜가 지갑에서 잔돈을 한 주먹쯤 꺼내 놓았다.

『난 거기에 투자하겠어。』

다혜가 신문가판대 위에서 6개의 중앙지를 집었다. 우리가 6개의 신문을 뒤적거려서 찾아낸 것은 영화광고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전과 서울 시내를 야간관광하는 예정표를 겨우 쥐어짤 수 있었다.

『피카소 보고 영화보고 야간관광하면 오늘 하루 제대로 명절하겠다。』

『설마 오늘도 찬이가 몸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다혜는 금방 영화광고에서 본 광고문안을 써먹었다.

『나에게도 꿈이 묻어 있다구요。』

『그대의 욕망 속엔 통금이 없으시구요。』

『육체의 욕망 속엔 애당초 통금이 없는 거요, 다혜씨。』

『사랑 앞엔 우리 모두 전과자겠죠。』

다혜는 한마디도 지지않고 말대꾸를 했다. 영화광고의 문안은 독살스런 외설투성이였지만 아랫도리가 급한 젊은이들에겐 퍽 달콤한 유혹이었다.

『여자가 없다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애?』

다혜가 물었다. 영화선전은 거의 모두가 여체를 상품처럼 늘어놓고 파는 장면 같았다.

『영화가 없어지겠지. 남자들은 죄다 자살했을 거구。』

『그럼 남자가 없었다면。』

『그땐 다르지. 여자들끼리 치고 받고 재잘거리고 물어뜯고 할키며 살겠지. 볼만할 걸。』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야。』

다혜가 주먹으로 내 등짝을 후려쳤다.

나는 아픈 시늉을 했다. 그건 예의였다. 여자에겐 그런게 필요했다.

『폭행죄로 고소한다。』

『여성단체들이 그냥 있지 않을걸. 여성모독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역사에 기록되겠지 머。』

여자들은 항상 남녀동등권파 여성해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실천할 단계에 들어서면 그 용기를 분실하는 것 같았다.

『뭘 보나?』

다혜는 현란한 영화광고를 뒤적이며 물었다. 광고문안대로라면 한꺼번에 열 한개의 개봉극장 영화를 다 봐야할 형편이었다.

『가장 원시적인 문제를 가장 감각적으로 해결한 영화를 보는게 어때?』

나는 영화광고를 훑어보며 대답했다.

『밥먹고 화장실 가는 영화있어?』

『정말 이럴래?』

『그렇잖아. 가장 원시적인걸 가장 감각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런거 아냐?』

『졌다。』

『내가 이겼다。』

다혜가 흐트러지게 웃었다. 개나리의 줄기 위에는 작은 방울들이 숨쉬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감독이나 여자제작자라면 남자 벗기는 영화 만들까?』

다혜가 새삼스럽다는 듯이 자꾸 그 얘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영화구경을 할 작정이었다. 여간해서 영화관 앞을 기웃거려보지 않았다. 텔레비전 때문만은 아닌것 같았다. 선전에 너무나 진저리나게 속았다는걸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외면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닐걸。』

나는 이렇게만 대답하고 혼자 키득키득 웃었다.

『왜 웃었어?』

『딴 생각하고 웃었어。』

『무슨 생각。』

『아무 것도 아냐。』

『피……。』

다혜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했다.

나는 여자감독이나 여자제작자라도 마찬가지로 여자 옷을 벗겨 상품처럼 늘어놓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공중목욕탕에 가서 보는 다른 여자들의 몸보다는 육체를 상품처럼 내다 팔수 없는 여자들의 몸에 자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가늠해보기 위해 그런 영화를 좋을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떤 몸의 여자이기에 남자가 돈을 지불하려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몸이 어떻길래 남자들이 기를쓰며 알고싶어 하지
쪼다들, 그게 문명이고 발전이란 말인가… 한심하다,

몸으로, 굶주린, 욕망, 어금이럭 정열 불타는 숙명, 뜨거운, 육체의 통곡, 뜨거운 밤, 땀에 젖은 하얀 침대, 불끈불끈, 살의 목소리, 함정, 정전, 오묘한 신비, 옷자락을 벗고, 꽃잎, 꿀, 오직 몸으로, 뜨거운 여자, 금지된……

광고문안은 그런 단어들로만 만들어져 있었다.

『국산영화 봐주는 게 도리 아닐까?』

나는 꽤 애국자인척 이렇게 말했다. 다혜가 약간은 아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꽃잎같은 남자시군요。』

다혜가 이죽거리는 건 미워할 수가 없었다. 영화선전문처럼 얘기하자면 그녀에겐 꿀이 묻어 있었다. 너무나 달콤해서 그녀 곁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화학의 표기처럼 산소, 수소, 질소, 철, 인, 그런 거 외에도 무엇인가 한개쯤 더 섞여있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요술할멈처럼 나를 붙들고 놓아지는 약이라도 묻혀 놓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떠한 수가 없었다.

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다혜였다.

극장 앞에 서서 선정적인 간판을 쳐다 보았다. 여자주인공은 다리를 벌려서 아슬아슬하게 부끄러운 부분만 감추고 있었다. 옷을 벗는 장면 앞엔 새빨간 장미꽃 한 송이로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표시해서 어린애라도 그것이 성기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었다. 그 옆엔 완전 성인영화란 간판과 미성년자 불가란 간판이 서있었다. 웃기는 것은 맞춤법 하나 제대로 써넣지 못한 광고 선전의 글귀였다.

『영화 다 보고 나와서 간판 그리는 아저씨 귀싸대기 때리는 건 아니겠지?』

다혜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내 감정을 제일 빨리 읽는 여자였다. 나는 간판 그리는 사내한테 감정이 많은 편이었다. 어려서 개구멍으로 극장에 가면 극장의 간판 그리는 사내가 나를 화장실 옆의 페인트통 많은 방으로 때리고 가서 내 얼굴에 빨간 페인트로 〈속 개구멍〉이라고 써주곤 했었다.

우리는 표를 끊었다. 우리가 보려고 한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밖에 앉아서 닥치는대로 우물우물 옥수수 튀긴 걸 먹었다.

『빌어먹을 놈들, 그때 어떤 옥수수 튀긴 거, 하나 우리 이름이 없어서 팝콘이라고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찬이가 만들면 뭐라고 할건데?』

『옥수수 뻥도 좋구 강냉이 튀김도 좋구… 제 새끼 이름은 또 한글로 지었겠지。』

『그만 신경 좀 끄고 살 수 없어?』

『영화나 보자. 내 신경이야 원체 주인 잘못 만난 거니까。』

『알진 아녀. 피곤하게 살지마。』

『구경이나 하자。』

우리는 머뭇거리며 들어갔다. 안내하는 여자가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소리로 자리를 가리켜 주었다.

벗은 여자는 추악했다. 내 아랫도리는 조금씩 전방져가고 있었다. 딴 눈으로 다혜를 쳐다 보았다. 어둠속에 가려져 있는 표정이었지만 뭐 난처한것 같았다. 나는 다혜를 훔쳐보고 싶었다. 화면에 나오는 여인처럼 다혜의 벗은 몸은 추악해 보이지는 않을것 같았다.

『저게 문명이고 저게 발전인가?』

『진보주의자인 척하는 쪼다들 있지. 속으로는 음흉하게 내 가슴이 이렇게 넓다는걸 보여주려는 섹스처라는걸 알면서 아가리로만 떠드는 쪼다들 말야。』

『찬이는 또 다 아냐?』

『물론 내가 더 쪼다지. 그런/또 다들 속이나 하고 앉아 있는게 한심한 놈이지。』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섬세한 감정이 교류하고 있었지만 차마 그런걸 표현하기에는 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를 가슴속에 있는 욕망의 끈을 잡은 채 영화를 보았다.

『한편의 훌륭한 사기극이었어。』

다혜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광고와 다른 사기 영화봤으니 입장료의 절반 내주시오
젊은놈이 할 말하거든 곱게 들어주는 배짱 좀 가져봐요

『이천원씩 내고 사기 당했지。』

선전글귀와 광고에 비하면 너무나 비천한 영화였다. 영화보다 백배쯤 나은것은 선전과 광고문안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나오다 말고 표를 받는 아가씨에게 다가갔다. 다혜가 얼른 내 옷소매를 잡았다.

『놔, 그냥은 못가겠어。』

『제발 이러지 마. 나 있을때만이라도。』

『웃으며 얘기할께。』

『제발 나 좀 봐줘。』

『돈이 아까와서 이러는게 아냐。』

『알아, 안대두。』

나는 다혜의 귓가에 이렇게 소근거렸다.

『태어나서 가장 점잖게 본전찾는 걸 한번쯤 봐줘。』

다혜는 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손가락을 걸어 주었다. 다혜가 저만큼 떨어져서 옥수수 튀긴걸 먹고 있었다.

『아가씨, 말씀 좀 여쭙겠읍니다. 이 영화가 지나치게도 과대허위 광고이셨는데 미련하고는 미련하게도 속아서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하실 수 있다고 사료되는지요?』

말투야 이 이상 점잖고 의젓할 수야 없었다.

아가씨가 나를 미친놈 쳐다보듯 노려 보았다.

『극장 주인장 어른님 계시면 잠깐 상면하옵고 말씀 올릴 수 있게 선처해 주시지요。』

내 목소리가 의뭉스러웠던지 아가씨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와요。』

『나중에 할 얘기라면 뭐하러 여기서 이러겠읍니까?』

『나가요. 바빠요。』

『난 안바쁜데。』

『정말 신경질나게 왜 이래요?』

목소리 끝이 높았다.

『봐줘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듬직한 사내가 내 어깨를 밀었다.

『뭐야?』

제법 한가락 뽐을만한 덩치였다.

나는 피식 웃었다.

『나가!』

『이게 당신 집요? 나가든 안나가든 내 맘 아뇨?』

『이 자식 봐라。』

『내가 당신 자식요?』

『어허!』

마치 제 자식 다루듯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극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뭐야? 어떤 새낀데 그래?』

『델구가. 버르장머릴 고쳐줘。』

『야, 이 녀석 좀 긁어줘라. 어디가 근질거리나부다。』

『요새 젊은놈들 다 저 모양야。』

『조져버려。』

모두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 나는 다혜의 당황하는 표정을 읽었다.

『여기 주인장 누구슈?』

내가 이렇게 물었다.

『나다. 왜?』

한가락 하게 생긴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꼬라지를 보니 당신은 극장 컨감은 아니구먼。』

『이 새끼가!』

손을 올렸다. 나는 사내의 손을 잡아 힘을 지그시 눌렀다. 사내가 쪽 주저 앉았다.

『이 새끼 끌고가。』

늙은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래 가자。』

나는 그들이 가자는대로 따라갔다.

기획실이란 간판이 붙은 방으로 들어가자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슈?』

내가 물었다. 사내들은 대답대신 한꺼번에 나를 걷어찼다. 나는 재빨리 소파뒤로 몸을 뺀 뒤에 간막이를 내던져 간격을 만들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싸우는게 어떠서?』

『뭐해, 없애!』

늙은이가 소리 질렀다. 그는 마치 갱 영화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말했다.

『난 늙었다고 봐주지 않소。』

『저걸…。』

다시 사내들이 달려 들었다. 나는 더 참고싶은 생각을 분실해 버렸다.

일곱명의 사내가 쭉 뻗어 누웠다.

늙은이가 엉성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늙은이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다 던졌다.

『관장이슈?』

『기도요。』

『그럼 왕년에 폼 좀 잡아보셨을 텐데 이런식으로 항의하는 사람을 작살내려고 기도하는 거요?』

『아니오, 그런건 아니오。』

『아까처럼 반말에 욕지거리에, 없애라는 소리 좀 쓰시지 그러슈。』

『미안하오。』

『갱영화에 출연해서 사람 패는 역이나 하실 일이지 정당하게 항의하는 사람 잡아다가… 참 좋시다。』

『그만 둡시다。』

『늙었으면 좀 곱게 늙어보슈. 젊은놈들 할소리 하거든 박수치는 배짱 좀 가지슈。』

내가 막 문을 열고 나서자 데며자진 사내와 젊은애들이 들이닥쳤다.

『내가 사장이오. 어떻게 된거요。』

사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사장요? 아니면 주인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댁은 누구요?』

『나요? 광고보고 이천원씩 내고 영화구경한 사람요. 그런데 광고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전의 반쯤은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이미 끌고와서 날 없애라고 합디다. 여기가 영화 상영하는 데니까, 사람 없애는 곳입니까?』

제 입으로 사장이라고 말한 사내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다.

『저 젊은 친구들도 저 꼴로 만들 생각이면 덤비라고 명령 좀 하슈。』

내가 이렇게 뽀드졌다. 물론 넘어갈 사내는 아니었다.

『뭘 원하는 거요?』

『나도 양심은 있소. 이천원씩 냈으니 천원은 영화 본 값이고 천원 한장씩은 돌려주쇼。』

사장이란 사내는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한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됐으면 가쇼。』

『여보쇼, 내 주먹솜씨가 만원어치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슈?』

『그럼 얼마를 내라는 거요。』

『내 주먹솜씨야 당신이 인연을 내도 손해는 아닐 거요. 그러나 나는 천원씩 두사람 몫이 필요한 사람이지 만원씩 받는 치사찬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천원 내놓으슈。』

나는 만원짜리를 내주었다. 그는 부시럭거리더니 천원짜리 두장을 내밀었다.

『나같은 젊은놈이 본전 내라고 하면 줘보슈. 젊은놈들 그 정도 패기있다면 써 내줘보는 어른이 좀 있어야할 거 아뇨。』

『나하고 얘기좀 해봅시다。』

사장이란 사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 하나 합시다. 젊은놈이 지금은 돈 없으니 나중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극장구경 좀 하자면 제발 좀 넣어주쇼. 또 그냥 보자고대드는 젊은 놈이면 서서 볼 자신있으면 보라고 넣어주쇼. 미성년자가 가발 쓰고 오거든 당신이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들키지않게 다 보여주고 내가 이 극장 사장인데 이런 영화는 이래서 나쁜거니까 다음엔 절대 오지마라고 점잖게 훈계 좀 해보쇼. 내 자식말고 남의 자식 좀 제발 사랑해 보슈。』

나는 문을 닫고 나왔다. 젊고 힘깨나 써보이는 애들이 비켜섰다. 나는 그 가운데 걸어나갔다. 사장과 자리에서 일어난 친구들과 젊은 사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섰다.

『나를 못 패서 속이 안풀렸을 거요. 날 안전하게 잘했다는 걸 보여주겠소. 당신들은 복이 많소。』

나는 표창을 꺼내 들었다.

『저 간판 여자의 왼쪽 엄지발톱 끝을 잘 보슈. 그리고나서 당신들 명이 길다고 생각하슈。』

나는 표창을 던졌다.

쉭!

바람 가른 표창은 정확하게 반나체의 주인공 여자 그림의 왼쪽 엄지발가락끝에 꽂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혜를 불렀다. 다혜는 여전히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주 점잖게 본전 찾았지。』

나는 천원짜리 두장을 들어 보였다. 다혜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나는 뒤도 쳐다보지 않은 채 뒤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노려보았을 것이다. 그래봐야 눈만 아프지 머.

<다음호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장의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전화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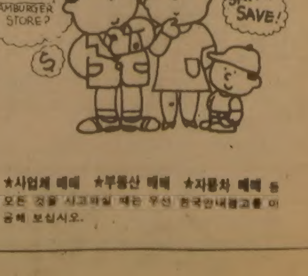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 VISA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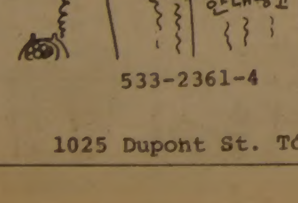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E.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1) 꽃집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다운타운 지역)
2) DONUTS SHOP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미시사가지역)
(Burnhamthorpe Rd. W. × Mavis)
시간 : 8 am ~ 4 pm(Full Time)
: 2 am ~ 11 pm(")
월 ~토 전화: 769－9854, 762－1572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 638－6380, 598－2210 Mr. 김

오리엔탈팔레스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전화 : 533－3545

Baby Sitter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전화 : 532－1054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499－4459, 299－1431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 (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지령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령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맥스 밀크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입주하셔서 4명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아 주실분 찾습니다.
전화 : 827－7057 Mrs. 최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구 혼

독신남, 대졸, 해군장교예편, 신장 175cm
체중 70kg, 재산있고 회사 중견사원역임.
독신녀(미혼 혹은 이혼녀) 원함. 기독교인이거나
앞으로 기독교를 믿으실분. 사진, 이력서 동봉.
연락처: 955 WARWICK CRT. #402,
(BURLINGTON, ONT. MR. LEE)

매매및 양도

VARIETY STORE 시설과 스탁 급매
2607 Eglinton W.
전화 : 789－0501 Mr. Singh

맥스 밀크 프렌차이스 팝니다.
연락 : 368－0686, 292－2024 (저녁)

"MIKE MUNCHIES 햄·버거 SHOP"
주매상 1,200 렌트 350 리스 3년6개월+5년 옵션
아스킹 $59,500($25,000 다운페이) 2812 BATHURST ST.
전화: 733－2008 마이클
: 781－3341 Mr. 박 (오후 6시 이후)

타사업관계로 살림집을 포함한, 버라이어티·그로서리·드라이크리닝 사업을 할 수있는 가게, 미니멈 가격으로 급매코저함. 오전 0시~오후 8시. 전화 : 783－0134 Bobby.

바쁜지역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300
리 스 : 10 Years
Call : Cliff or Joe for appointment
전 화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돌개시.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m－7 p.m.

1981년형 16 Feet Fish Master Boat. Almost New. 최신장비 일절 갖춤. 아스킹: $6,500 꼭히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전화: 270－1981(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 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가정의 벗 한국일보

Corner에 위치한 가게 세놓습니다.
(St. Clair × Silverthorn)
1734 St. Clair. W. 전화 : 742－0434

2층에 2 베드룸이 딸린 그로서리 스토아매매. 개인사정에 의해 급매코저 함.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음.

K. C. HERLT REAL ESTATE CO.
TEL : 487－8187 Mr. Martin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하우스 렌트

셋방 있음.
1 베드·룸 + 부억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Mr.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관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섬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순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핀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868－0922

Sun Life (김신명)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482－0166

Sun Life (백용빈)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호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각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8998

불광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선련사
4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춘탁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 869－0589, ☎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스포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건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현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영호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영규

한국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